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December 2013 vol.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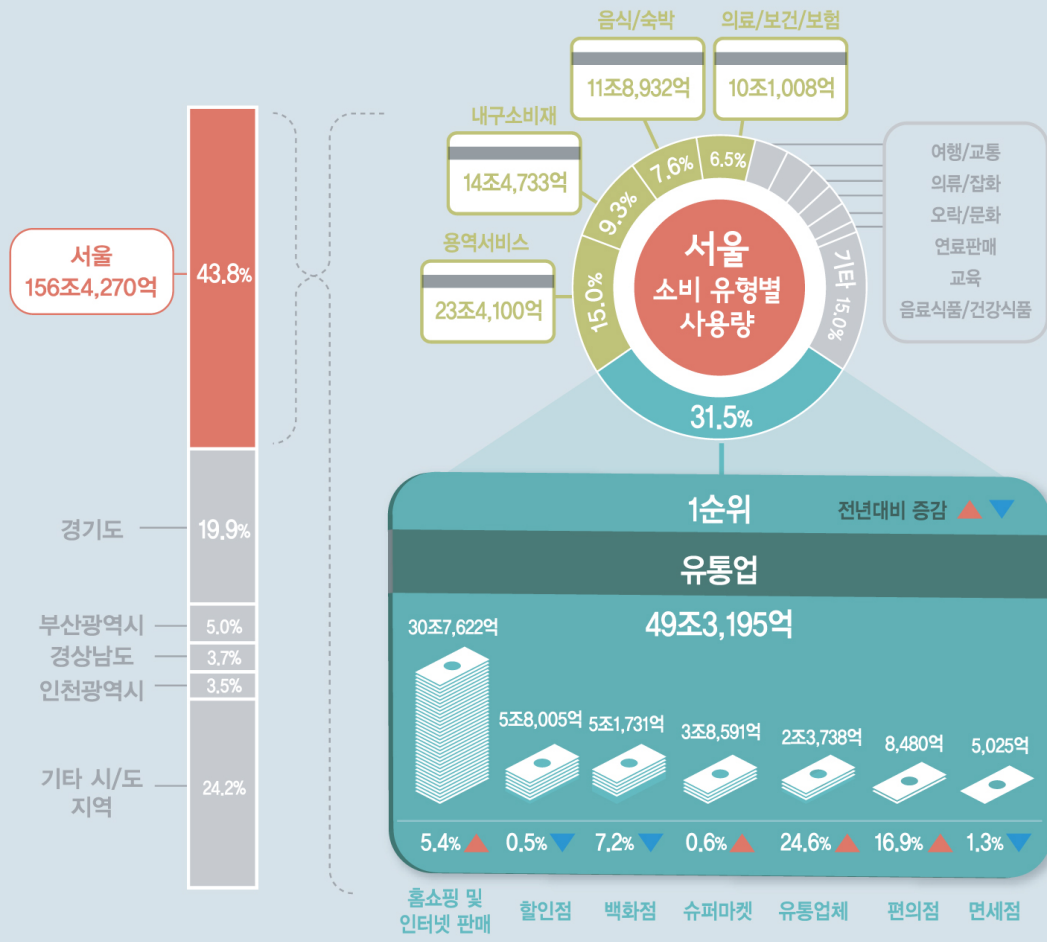
이달의 이슈
서울과 교육서비스업의 국제화
변양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재조명
박영숙

생생리포트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 : 지식기반서비스업
김묵한 · 장윤희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2)
박희석 · 오도영
인포그래픽스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서울 전체 신용카드 사용량 156조 중 '유통업'이 31.5%로 최고



이달의 이슈	3	서울과 교육서비스업의 국제화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1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재조명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생생리포트	21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 : 지식기반서비스업 김목한(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장윤희(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37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2)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오도영(LSE지역 및 도시계획 박사과정)
인포그래픽스	47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쓴 곳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53	요 약
	55	생 산
	57	소 비
	58	고 용
	61	물 가
	62	부동산
	64	금 융
	72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부록	77	통계표

서울과 교육서비스업의 국제화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econbyun@keri.org



1.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을 보인 우리 경제는 비록 추경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2013년 2분기 및 3분기 연속으로 1.1%의 성장을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는 있지만 아직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미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침체 극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세대간 갈등,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가 일자리가 모자라서 생긴 것이란 점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고용률 70%’가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경제의 일자리는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Texas A&M 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실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일자리창출 민간전문위원
- 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교육서비스산업 시장창조의 경제적 효과(2013),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2013),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3),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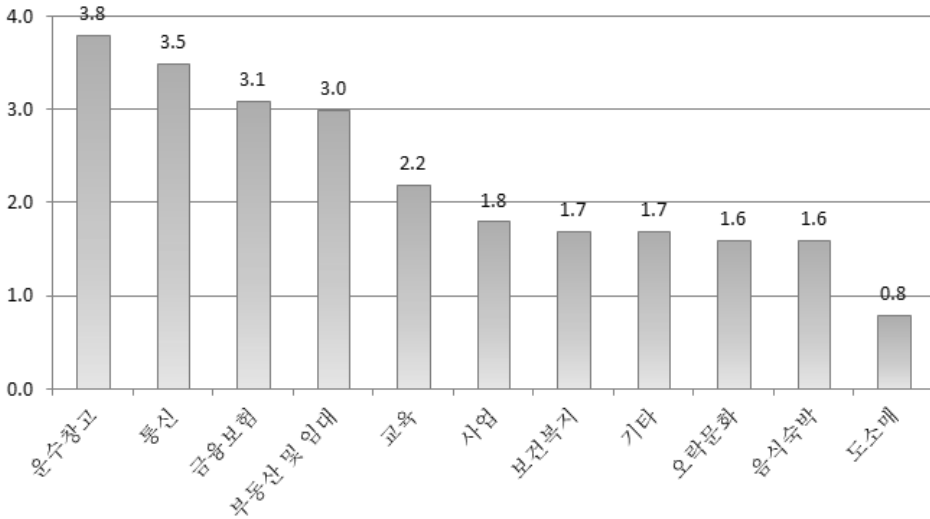
지난 1993년 이후 매년 연평균 1.3% 정도씩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1.7% 이상 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서비스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유지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일자리 창출의 근원은 여전히 서비스산업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노동투입 증대에만 의존해왔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창출이 부진한 까닭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연평균 2.7%씩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1.6%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1.5%로 더욱 낮아졌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비스산업이 과거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서비스산업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서비스산업 일자리 확대가 우리 사회가 가진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01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는 약 2,553만 명이다. 이 중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1,7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9.7%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의 83%나 미국의 8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 67%보다는 오히려 조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내부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취업자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40%에 달했고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2년 33%에 이르고 있다. 비록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미국의 29%, 영국의 25%나 스웨덴의 2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즉,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취업자의 문제는 서비스산업 취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고 서비스산업 취업자 중 많은 사람들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이런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방출된 인력이 서비스산업 중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준비가 부족한 인력들마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한계를 넘다보니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부작용마저 생기고 있다.

다행히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예전의 평균적인 수익도 창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오락문화업 이외 다른 서비스업종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 어렵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있는 진입장벽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그림 1] 서비스산업 업종별 진입장벽

주: 진입규제를 정부독점, 지정, 허가·면허, 인가·승인, 등록, 신고로 구분하여 1에서 6까지 수치를 부여하고 기업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구함. 지수가 높을수록 진입장벽이 높음을 의미함. 이병희 외(2007) 참조

한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영세성도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특히 전통서비스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소규모 사업장이 너무 많고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제조업에서 1~4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3.2%에 불과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그 비중이 무려 60.7%에 달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서비스산업에 영세한 사업장이 많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서비스산업 시장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그간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 결과 경쟁을 통한 대형화 및 전문화, 그리고 시장의 확대보다는 한정된 내수시장을 어떻게 분할하여 점유율을 높일 것인가만 고민해왔다. 즉, 그간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시장확대보다는 기존 시장의 보

호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기존 진입자들은 생산성향상보다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제로섬게임으로 인식될 경우 규제개선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표 1] 서비스산업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비중 및 종사자 비중

(단위: %)

	사업장 규모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통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사업체 비중	1 - 4명	83.6	64.9	86.6	91.1	90.7
	5 - 9명	8.4	16.0	7.3	5.4	6.3
	10 - 49명	6.7	16.2	5.1	3.0	2.7
	50 - 99명	0.8	1.8	0.6	0.3	0.2
	100 - 299명	0.4	1.0	0.3	0.2	0.1
	300명 이상	0.1	0.2	5.3	0.0	0.0
종사자 비중	1 - 4명	28.8	13.2	34.8	50.6	60.7
	5 - 9명	10.4	10.4	10.6	11.1	13.8
	10 - 49명	24.7	31.0	22.1	17.6	16.2
	50 - 99명	10.5	11.7	10.0	5.6	3.6
	100 - 299명	11.1	14.5	9.8	8.2	3.5
	300명 이상	14.5	19.3	22.8	6.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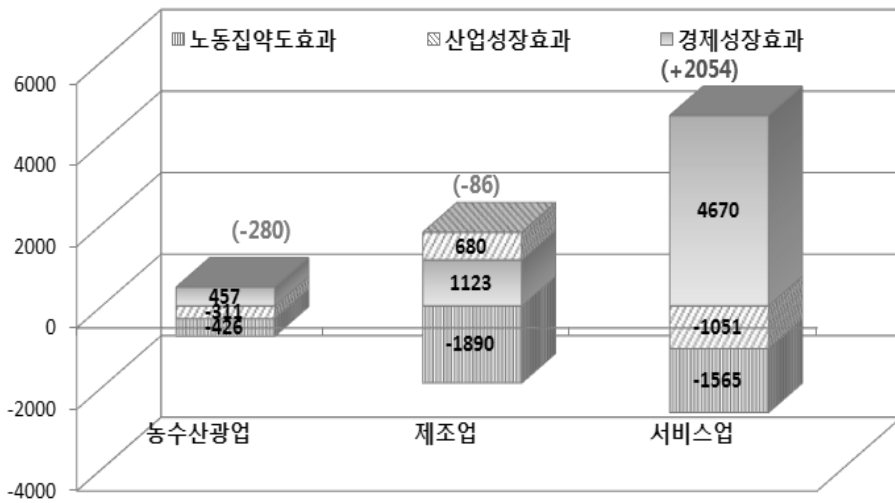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전통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를 노동집약도의 변화,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및 경제성장의 변화로 분해한 아래 [그림 2]는 서비스산업의 시장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준다. [그림 2]에 의하면 2004년~2011년 사이 노동집약도의 하락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약 156만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서비스산업이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약 105만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무려 46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총 205만4천 명 증가하였다. 즉,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산업의 생산 증가임을 [그림 2]는 보여준다.

시장의 확대가 일자리창출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는 서비스산업을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인식하면서 개방을 통한 시장의 확대에는 무관심하였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확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개방되

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교류해야 하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처럼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도 드물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 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무려 40여 개나 있고 3억의 중산층이 있다. 또한 인구 13억5천만 명의 중국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 올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00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중국 인구 모두가 한번씩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무려 33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산업의 시장확대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고용창출의 요인별 분해(2004~2011)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에 근거한 필자의 계산 (단위: 천 명)

3. 서울, 교육서비스업의 국제 메카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이나 단체들의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로섬게임을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시장을 해외로 넓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장 확대라는 관점에서는 서울보다 지리적으로 더 유리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비스를 주고 받는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인적 이동이 활발하고 용이한 곳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급 인적자본의 대부분을 보유한 곳이다. 따라서 최대의 수요지이자 동시에 최고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 시간 상 한 시간 남짓 떨어져 있어 동아시아 15억 인구가 만나질 비행거리 안에 있는 곳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요건은 서울이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서울에 가장 유리할까? 필자는 주저없이 서울의 비교우위는 바로 교육서비스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풍부해야 하고 지리적으로 거대한 수요자 집단과 근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서비스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교육서비스업이다. 교육서비스업은 서비스 공급자의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업종 중 하나이다.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의 인적 자본과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은 거대한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업종이다. 비록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지 교육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직접 서비스를 주고 받는 과정이 가장 중시되는 업종이 바로 교육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동아시아 교육서비스업의 국제적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상당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울에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으로 외국 수요자들을 불러 들이는 작업이다. 필자는 지난 2년 간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의 개발을 위해 보고서도 작성하고 외국도 방문하였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첫째, 서울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규제완화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작되지만 규제완화의 마무리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조례안의 수정을 통해 마무리된다. 제주도의 예를 살펴보자.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특별법 내에서 외국인학교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하부 시행안에는 기존 사립초등학교 관련 도조례안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대부분 외국교육기관들의 운영 상 필요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만 하부 시행령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전국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조건을 가졌다고 본다. 그 이유는 바로 국내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접근성이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교육기관이 중국의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해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한다. 즉, 중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멀리 제주도 외국인학교로 보내기 보다는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서울 시내 외국교육기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방문을 지출의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실효성을 갖춘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은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국제 교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치 설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이 상당하다. 관련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설립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유치과정에서 부처 간의 업무 협의 활성화 및 의견 충돌의 해소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유치 승인과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운영 과정에서 학교와 서울시 간의 협의 사항이 있을 시에 이를 수월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서울시만의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안(西安)시는 삼성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행정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삼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모든 유치과정을 신속히 처리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은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설립과정에서 외국 교육기관과 관련 부처를 신속하게 연결해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을 직접 연결시켜주어 교육기관들이 학교를 설립하기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도 통합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유치 및 설립과정에서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금융서비스가 절실하다. 필립스 아카데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 산업 특성상 초기에 발생하는 투자비용의 부담만 극복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를 다시 학교에 재투자 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영

리 학교법인 등 교육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차입을 제공할 금융기관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금융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비영리 법인들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매우 많이 있다. 실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초반 5~6년간은 적자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학교 운영이 정착되고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입금 형식의 금융조달 방식이 매우 보편화되어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장기 차입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등의 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성장의 핵심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이다. 일자리의 70%를 책임지는 서비스 분야의 영세성, 후진성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국내 소비자만을 상대로 하는 우물 안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관광, 의료, 문화산업 등을 국제적 매력과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특히, 서울처럼 인적 자본 측면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도시는 드물다. 이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의 소비자들을 국내로 유도하는 일만 남았다. 서울시의 매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오리라 믿는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재조명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yspark@kedi.re.kr



1. 창조경제 구현과 교육 서비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란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를 재조명해보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교육 서비스의 역할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생애 발달 관점으로 일자리의 주기를 재고하게 되면, 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교육기관들이 부각되고 있어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 조명이 필요하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학사,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및 박사,
- 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타당성 심사위원,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 현) 새누리당 교육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
- 한국 교사의 학교생활문화 개선 연구(2013),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사 수업 지원 방안 연구(2012), 교원양성기관평가사업(2011),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1), 교육 서비스업 인력 증대기 수립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2007)

* 이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제59차 교육정책포럼(주제: 교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2013년 10월 4일 실시)에서 저자가 발표한 주제발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서비스 활성화)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서울 지역의 교육 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창조산업이란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업을 재조명하게 되면, 성장 동인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고용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과 인력 유형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장기적으로 접근되는 특징을 감안해 보면, 추진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조기에 착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동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조망하고, 성장 동인을 중심으로 교육투자 대상과 영역을 진단 발굴할 필요가 높다.

2. 창조산업으로서의 교육 서비스업 재조명

교육 서비스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하나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조산업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창조산업은 속성상 창조상품을 생산해야 하고, 유통을 위해 창조 서비스가 전략적으로 지원된다.¹⁾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창조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연계된 역할을 정립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13년 9월 24일 국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토론회’ 이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 ‘창조경제가 나아갈 방향’에서는 창조산업의 분류와 창조경제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진단 결과가 제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창조산업은 ① 광고, ② 건축, ③ 예술, ④ 공예, ⑤ 패션, ⑥ 출판, ⑦ 소프트웨어 등 정보 관련 산업, ⑧ 영상 오디오, ⑨ 오락 등, ⑩ R&D, ⑪ ICT 기기로 제시된다.²⁾

이중 교육서비스의 기능상 속할 수 있는 유형은 R&D일 수 있으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교육기관에 속한 인적자원의 창조적 역량 개발에 관련된 기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11가지 분류 외에 교육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는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의 속성과 연관되어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창조경제 역량은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즉 ① 인적자본, ② 혁신 자

1) 한상완외 2인(2013),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조산업 육성부터: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평가,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 주평, 통권 542호, 6월 7일,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p.22.

2) 앞의 글, p.33.

본, ③ ICT 자본, ④ 문화 자본, ⑤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을 지수를 중심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³⁾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 지수는 6.2로 평균 6.3보다 낮고 평가 순위는 OECD 31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물러 있다. 창조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평가 순위를 살펴보면, ICT자본 역량(1위, 8.5점), 혁신자본 역량(11위, 5.4점), 사회적 자본 역량(21위, 6.7점), 인적 자본 역량(22위, 6.5점), 문화자본 역량(29위, 3.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ICT 자본 역량과 혁신자본 역량은 상위권에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 역량과 인적자본 역량, 문화자본 역량은 하위권에 밀려있다.

이 가운데 인적자본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위 덴마크(8.9점)와는 2.1점의 차이가 났는데 주요 원인은 대학교육 만족도, 과학교육, 교육시스템 수준 등이 중하위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중하위권으로 평가된 교육시스템 수준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고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본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이 창조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있게 재조명될 필요가 높다. 현재 교육 서비스업을 통해 길러내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적자본이 창조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한 때이다.

3. 창조산업으로서의 교육 서비스업 성장 가능성

창조산업으로서 교육 서비스업을 재조명할 때,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 동력은 ① 성장 속도, ② 부가가치 유발 효과, ③ 고용 유발 효과, ④ 생산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진단된다. 이들 네 가지를 기준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금년도 평가 진단하여 보고한 결과에서는 산업의 규모가 큰 R&D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 관련 사업을 창조산업 내 융합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밖에 창조산업의 여건이 미흡하며 몇 개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부가 가치 창출과 고용 유발 효과 등에서도 산업간 격차가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점이 강조된 바 있다.

3) 앞의 글, pp.27-30

이중 부가 가치와 고용유발 효과에 산업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서비스업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산업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관련 3개 산업에 주목되는 문제에 주목할 만하다. 즉, 2011년 기준 전체 창조산업 부가가치의 73.8%, 취업자 수의 65.3%가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 R&D, ICT기기 등의 3개 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광고 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약 2,770만원에 불과한데 ICT기기 산업은 9,230만원으로 3.3배 차이가 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용 유발 계수 측면에서는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축으로 제시되었다. 2011년 건축은 0.902이나, ICT 기기는 0.441에 불과하였다. R&D는 최종 수요 10억 원당 고용 유발 효과가 19.8명으로 가장 높지만 ICT 기기는 6.5명으로 낮았다⁴⁾.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 서비스업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휴먼웨어의 창의역량 수준과 휴먼웨어의 저변 확대이다. 특히 휴먼웨어의 저변은 창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군 확대에 관심이 높다. 경쟁력 높고 구매력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창의 인재 육성이 시급하고, 기존의 공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혁신 방안, 창의인재 육성 방향과 과제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바 있으나,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 인력군의 양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일자리는 창의 상품과 창의 서비스에 관련된 인력군의 확보로부터 시작한다. 창의 인력군의 확보를 위한 접근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즉, 창의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생산하는 인력 군 확보에 관한 논의로부터 창조서비스를 위한 지원 인력 군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서비스 영역에서는 창조경제역량 진단 평가에서 고용 유발효과가 가장 높게 제시된 ‘건축’ 영역과 ‘R&D’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창조서비스 지원 인력 군이 탐색되어야 한다.

교육 서비스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의 교육기관과 일반 고습학원에 몰려있다. 최근 교육기관에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활동과 컨설팅 활동이 활발하다.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 수요가 교육 관련 컨설팅과 평가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양성 수

4) 한상완 외 2(2013)

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전문가 및 컨설팅 인력은 이미 학교 교육권에서도 양성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은 유아교육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이다. 유아교육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은 학생을 중심으로 개별 교수학습 활동이 요구되고, 맞춤형 돌봄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야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의 시설 환경에 변화가 요구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 생태계가 조성되면 학교시설의 복합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에서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재건축 사업에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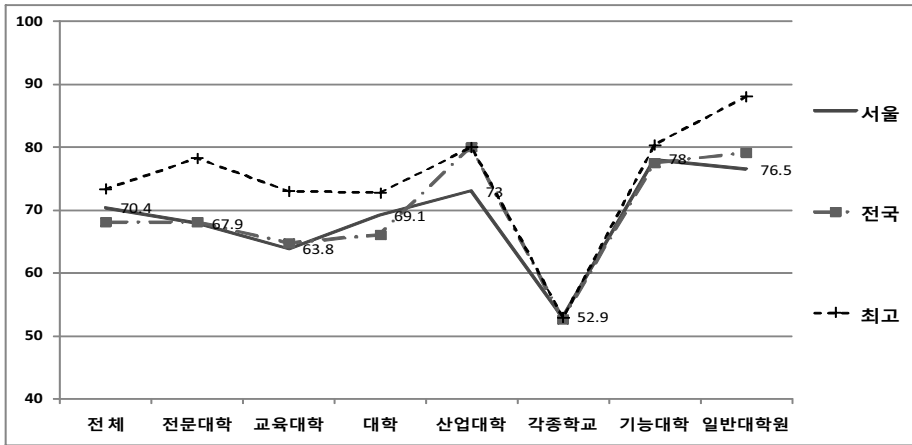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 여부는 담당하는 사람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달려 있다. 일자리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일자리라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창조경제에서 요구하는 창조서비스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직무 역량을 계획하고 고용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은 교육서비스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업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4. 서울 지역의 교육 서비스업 활성화 방향

교육 서비스업이 창조산업으로서의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서비스업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인력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훈련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유형을 적기에 양성·공급해야 하며,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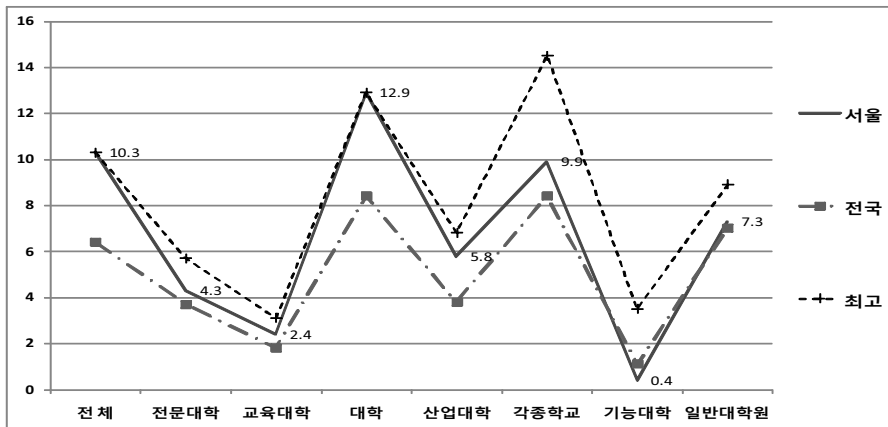
서울 지역에서도 교육 서비스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더욱이 창조산업과 연관된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수준을 살펴보고 교육 서비스업 활성화에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2012년 취업통계연보에 제시된 교육기관별 졸업자의 취업률을 제시한 것이고 [그림 2]는 진학률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 지역의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전국 평균과 최고 수준을 비교적으로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1] 2012년도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취업통계연보.



[그림 2] 2012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취업통계연보.

서울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은 70.4%로 전국 평균 68.1%보다 다소 높으나 진학율은 10.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진학율이 최고 수준인 이유는 대학교 졸업자의 진학율이 전국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취업률을 교육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교와 각종학교, 기능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진학률은 기능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일반 4년제 대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교육과정 또한 취업 지향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진학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대학원으로서의 진학율이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조산업 창출을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창의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생산하는 인력 군의 확보 관점에서 창조 서비스를 위한 지원 인력 군을 확보하는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조 상품 개발과 지원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졸업자의 창업 지원을 더욱 적극 지원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인력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연계하여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직업의 생애 주기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체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부응하여 고령자의 재취업과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성인력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 : 지식기반서비스업

김묵한(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장윤희(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 : 지식기반서비스업

김묵한 부연구위원 · hookman@si.re.kr

장윤희 연구원 · yhjang80@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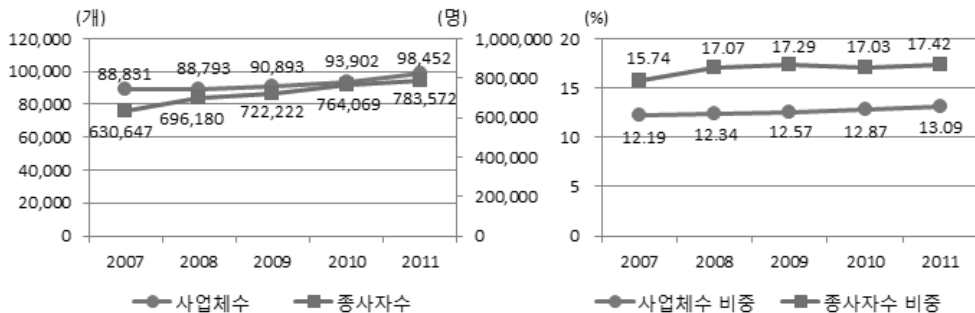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1. 서울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조사 배경 및 개요
2. 서울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체 현황
3. 서울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정책 수요 실태

1. 조사개요

1.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조사 배경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한 지식기반서비스업 5대 산업군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정의
 -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산업군 별 세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된 코드를 기준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정의
 -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의 5개 산업군
- 2011년 기준으로 서울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수는 98,452개, 종사자수는 783,572명
 - 지난 5년간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서울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09%, 17.42%로 종사자 비중이 사업체에 비해 높았으며, 사업체 비중은 소폭 증가세, 종사자 비중은 2008년 이후 17% 대를 유지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그림 1]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세(2007~2011)

- 사업체는 ‘물류’ 산업이, 종사자는 ‘기업지원서비스’ 와 ‘정보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음
 - 사업체는 물류(39.9%) 산업과 기업지원서비스(25.5%)가 절반 이상인 65.4%를 차지하였으며, 종사자는 기업지원서비스(35.5%)와 정보서비스(34.5%)가 70.0%에 달함

- 사업체에서는 문화 산업이 8.3%로 유일하게 10% 이하의 비중을 보였으며, 종사자는 관광 산업의 비중이 6.1%로 가장 낮음

<표 1>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9대 산업군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2011년)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비중 (%)	종사자수 (명)	종사자수 비중 (%)
정보서비스	13,872	14.1	270,056	34.5
기업지원서비스	25,080	25.5	277,809	35.5
문화	8,163	8.3	92,972	11.9
관광	12,030	12.2	47,428	6.1
물류	39,307	39.9	95,307	12.2
합계	98,452	100.0	783,572	100.0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2.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조사 개요

-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조사를 통해 현재 기초통계 자료로 산출이 불가능한 기업의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실시
 - 2013년 10월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약 1% 수준인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의 보완 조사를 병행하는 설문 조사 실시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실제 업체 규모 및 업종 비중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중치 적용
 - 내용으로는 업체형태, 인력현황, 재무현황 등의 업체현황과 창업여건, 혁신역량, 고용전망, 정책 수요 등의 정책수요 실태 조사를 포괄

〈표 2〉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분류

산업군명	분류번호	세부 산업명 (KSIC9)
정보서비스	301	전자상거래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기업지원서비스	302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경제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비금융 지주회사, 경영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업, 인터넷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문화	303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뉴스 제공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관광	304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물류	305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택배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일반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 관련 서비스업

2.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체 현황

1. 업체 형태: 회사법인이 다수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

- 회사형태는 회사법인 80.3%, 개인사업자 19.7%로 지식기반제조업보다 회사법인의 비중이 높음
 - 업종별로는 정보서비스 산업군의 회사법인 비중이 93.6%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가 66.0%로 가장 낮음
 -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의 회사법인 비중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10~49인 및 50~99인 등, 10인 이상 99인 이하도 90%가 넘는 비중을 보임
 - 반면 5~9인은 개인사업자 비중이 30.4%로 타 산업보다 높게 나타남
- 고객 유형별 매출유형은 개인소비자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33.0%, 대기업 12.1% 순
 - 정부지자체(5.0%)와 공기업(3.9%)은 5% 이하에 불과
 - 제조업의 경우 고객유형별 매출유형은 중소기업이 절반 가까운 49.2%를 차지
- 5인 미만 업체의 비중이 74.1%로 대부분이었으며, 5~9인(13.2%)과 10~49인(10.6%)도 10% 이상을 차지
 - 50인 이상 되는 규모는 합하여 2%대에 불과

2. 인력 현황: 업체 대부분이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없으며, 특히 전문직 수급이 곤란

- 2013년 9월 1일 기준 회사 전체 인력은 928,485.9명으로, 이 중 서울 사업장 종사인력은 83.9%에 해당하는 778,535.0명으로 조사됨
 - 경영기획/사무관리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엔지니어) 23.7%, 영업/마케팅 10.5%도 높은 편
 - 전문 평균(7.5%)과 기능/단순생산(7.4%), 연구/R&D(6.6%)는 10% 미만 차지
 - 정보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경영기획/사무관리직 인력이 가장 많았으나, 정보서비스 산업은 기술(엔지니어) 인력 비중이 가장 높음

- 기술(엔지니어) 분야의 인력 부족이 47.4%로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등 가장 심각하며, 경영기획/사무관리직도 17.1%로 충원수요가 높음
 - 나머지 부족인력은 10% 이하로 비슷한 편
 - 수급이 가장 쉬운 분야는 경영기획/사무관리로 60.9%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가장 어려운 분야는 전문직으로 70.0%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인력 분야별 수급 상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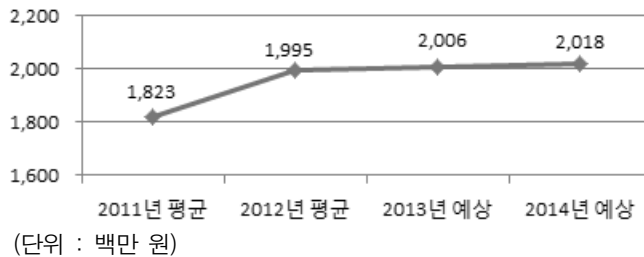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중간 정도이다	구하기 어렵다	매우 구하기 어렵다
경영기획/사무관리	6.0	54.9	27.1	10.6	1.4
영업 및 마케팅	0.3	5.7	60.1	27.8	6.1
R&D/기술(엔지니어)	0.7	11.9	40.0	38.6	8.7
전문	0.3	1.2	28.5	62.9	7.1
기능	0.2	2.3	50.8	30.8	15.8

- 숙련된 인력 부족과 근로조건의 불일치가 인력확보가 힘든 주된 원인
 -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 부족’ (60.6%),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치와 불일치’ (49.7%), 취업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34.0%)가 주요 문제점이었으며, ‘해당 전문분야 인력이 적음’ (33.4%)도 큰 이유 중 하나
-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96.6%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추가 인력을 보강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이유로는 ‘매출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35.4%)와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31.6%)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3. 재무 현황: 올해는 부진하나 내년 매출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

-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평균 매출액은 2011년부터 작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작년부터 내년까지 실질적으로는 정체상태로 볼 수 있음
- 2012년 평균매출액은 1,994.9백만 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0.5% 증가하였으며, 2014년은 올해 대비 0.6%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산업군별로도 모든 산업이 2012년 이후로 큰 차이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보서비스와 관광이 올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은 모두 비슷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2] 지식기반서비스업 매출액

- 올해 업체의 경영상황 예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38.3%가 악화될 것이라고 한 반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예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1%에 불과
 - 2014년은 악화 예측은 31.9%로 줄었으나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5.3%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현재와 비슷할 거라는 예측이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하였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업황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내년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1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전년 84.7 대비 88.2로 3.5 상승하였으며, 내년도 89.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산업별로 업황지수는 2012년 80대 초반, 2013년 80대 중반 정도로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물류 산업은 2013년 93.6, 2014년 93.9로 유일하게 90 이상의 지수를 기록

<표 4> 동종업종 업황지수 예상

(단위 : 2011년 = 100)

	2012	2013	2014
지식기반서비스업	84.7	88.2	89.1

- 업체 경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속에서 마케팅활동 강화,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 자구책에 힘쓰는 추세
 - 경영상황 악화 1순위 요인은 ‘매출 부진’ 이 82.4%로 압도적이었으며, 2순위 요인으로는 ‘업체 간 과당경쟁’ 이 28.1%로 나타남
 - 경영상황의 호전 1순위 요인은 ‘마케팅활동 강화’ (46.6%), ‘기술혁신 강화’ (17.9%) 등을 꼽았으며, 2순위로는 ‘불필요한 비용절감’ (21.7%), ‘국내 경기 활성화’ (19.0%) 등을 꼽음

3.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체 정책 수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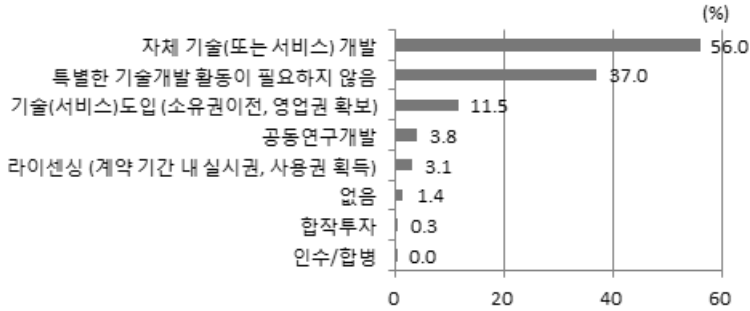
1. 창업 여건: 경영상황 악화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창업여건 저하 추세

- 창업 여건은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기에 여건이 나쁘다는 의견이 45.2%로 여건이 좋다는 의견 8.7%보다 5배 이상 높음
 - 창업여건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매출감소’ 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과당경쟁’ (20.7%) 및 ‘시장감소’ (15.0%) 등도 높은 편
 - 산업군별로는 물류의 창업여건이 11.6%로 타산업에 비해 좋았으며, 문화가 3.4%로 가장 낮았음
- 서울에 동일 업종을 창업하기 좋은 지역이 있다는 의견은 25.8%로, 없다는 의견 28.2%와 비슷함
 - 서울시에 창업하기 좋은 지역이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으로는 물류 (29.6%), 문화(27.5%)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창업친화지역으로는 구로구 구로동(20.8%)과 금천구 가산동 (19.8%)이 비슷하게 추천됨
 - 구로구, 금천구의 서울디지털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하여 국내 최대의 IT 벤처타운으로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제조업도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 집적지

- 그 외에 강남구(8.6%), 강남구 역삼동(8.1%), 강남구 신사동(7.9%) 등이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으며, 기타 지역은 5% 미만으로 낮은 편
- 해당지역 추천 이유로는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접근성’ (34.9%), ‘동종업체, 협력업체와의 접근성’ (34.2%), ‘교통 편리성’ (18.2%) 등이 해당 지역의 추천의 주요 이유
- 기업경영이나 성장, 신규 창업 등에 가장 방해가 되는 정부 정책은 ‘창업자 연대 보증제도’ (28.9%)로 지적
 - ‘창업실패시 신용불량자 전략’ (19.8%), ‘고용의 유연성 부족’ (17.9%), ‘스톡옵션 행사시 즉시 과세’ (12.8%) 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2. 혁신역량: 일부 산업군 외에는 서비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에 소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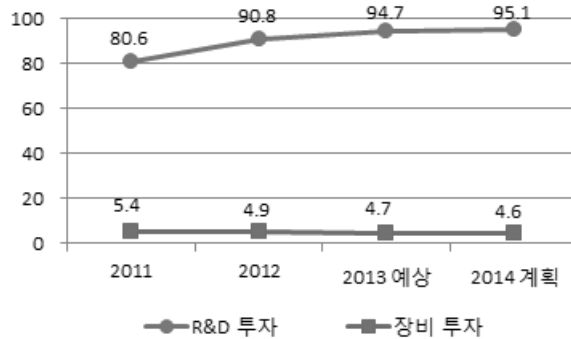
- 지식기반서비스업 기업의 대부분인 97.6%가 연구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조직이 있는 기업(2.4%) 중 1.7%는 기업부설연구소(인가)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비인가)는 0.5%, 연구전담부서(인가)는 0.2%에 불과
- 세계 최고 기술/서비스 수준을 100이라 할 때, 상대적인 자체 수준을 평균 68.9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산업군별로도 거의 편차가 없었음
 - 한편 국내 최고 수준에 비한 자체 수준은 평균 78.4로, 세계 수준에 비해 10 정도 높게 평가
- 최근 3년간 주요 기술개발, 신제품/신상품(서비스) 개발 방식으로는 ‘자체 기술(또는 서비스) 개발’ 이 절반 이상인 56.0%였으며, ‘특별한 기술개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 는 의견도 37.0%에 달하였음
 - ‘기술(서비스)도입 (소유권이전, 영업권 확보)’ 가 11.5%로 높은 편이었으나, 나머지 ‘공동연구개발’ (3.8%) 등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 기술(또는 서비스) 개발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개발자금부족’ (40.0%)과 ‘개발인력 확보 곤란’ (20.1%)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부각



[그림 3]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기술개발 방식 비중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R&D 투자와 장비 투자 추세는 대조적이며, 산업군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R&D 투자 비용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비투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태
- R&D 투자는 정보서비스 산업군이 2013년 기준 275.3백만 원으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다음이 문화 산업의 122.6백만 원임
- 장비투자는 2011년 기준으로는 관광 산업이 6.3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물류 산업은 2012년 이후 감소 없이 유지하는 등 2013년 기준 가장 높은 상태임
- R&D 투자 비용은 2011년 80.6백만 원에서 2014년 예상 95.1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장비 투자 비용은 2011년 5.4백만 원에서 2014년 예상은 4.6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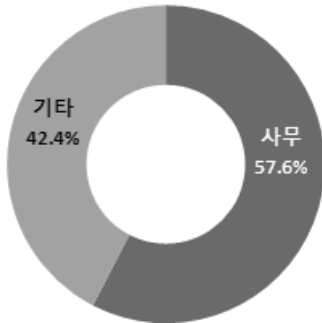
[그림 4] 지식기반서비스업 R&D 및 장비 투자 예상비용(2011~2014)

3. 입지 관련: 오피스 위주로 현 입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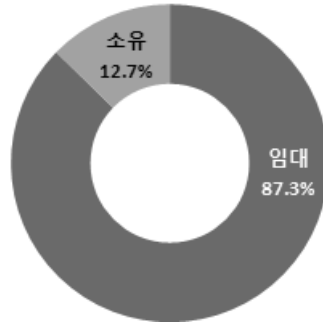
- 지식기반서비스업체의 운영에 있어 현 사업장의 입지와 근무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사업장의 위치가 업체 운영에 중요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64.0%였으며, 시설이나 교통환경 등의 근무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76.2%에 달하여, 입지보다 근무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임
 - 현 사업장 입지에 대한 불만은 절반 이상인 56.3%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높은 임대료’ (21.2%) 정도였음
- 교통 편리성과 지역이미지,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등이 현재 입지에 자리 잡은 주요 이유
 - ‘교통 편리성’ (57.5%), ‘좋은 지역 이미지’ (51.7%),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49.9%), ‘쾌적한 주변 환경’ (41.5%) 등에서 해당 입지가 우수하다는 응답이 미흡하다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저렴함 임대료나 입지비용’ (25.1%)과 ‘관련 연구소, 대학 등의 근접성’ (22.7%)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항목
- 향후 2년 이내 사업장 이전 계획은 77.0%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2%가 미정, 있다는 의견은 13.8%에 불과
 - 이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중에서 이전 대상지역이 정해진 업체는 5.7%에 불과하였으며, 고려 대상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성동구 행당동, 송파구 문정동이 동일하게 15.0% 씩으로 나타남
 - 이전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혹은 입지비용’ 이 41.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도 19.6%로 꼽힘
- 주요 협력업체 업종은 ‘건설업’ (18.3%), ‘SW개발 및 SI, 정보서비스업’ (11.7%),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8.7%) 등이었으며, 주요 사업체가 없다는 응답도 16.3%에 이룸
 - 주요 고객사 업종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4.7%)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13.3%), 공공기관(11.9%) 순
-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장은 오피스 위주로 평균 규모는 421.4㎡(130평 내

외) 수준

- 용도별로는 사무용이 57.6%, 기타 용도는 42.4%로서 사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자가여부를 보면 임대가 8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소유는 12.7%로 지식기반제조업 29.0%의 절반 이하 수준



[그림 5]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장 용도



[그림 6]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장 자가여부

○ 사업장 유형으로는 오피스가 81.9%로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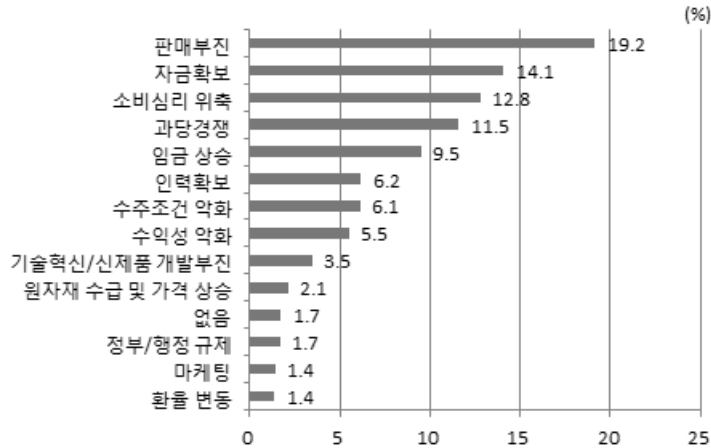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근린상가(11.8%)가 높은 편이고, 지식기반제조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벤처타운(2.8%)의 비중은 낮음



[그림 7]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장유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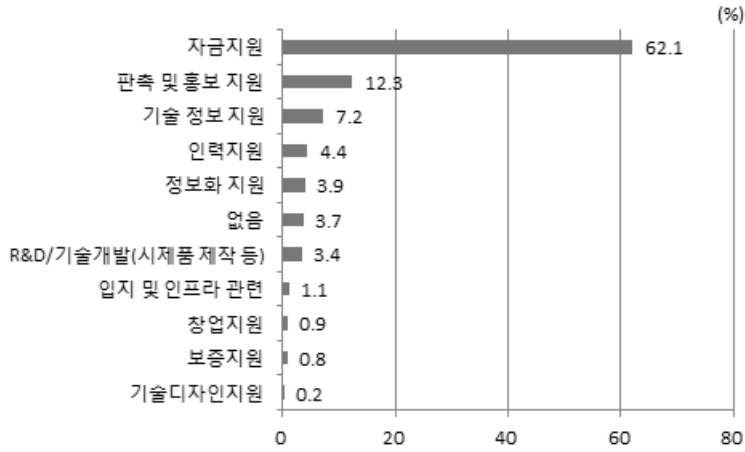
4. 정책 수요: 자금지원 외에 여타 정부정책에 대한 수요 미미

-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은 ‘판매부진’ (19.2%)이었으며, 다음이 ‘자금확보’ (14.1%)와 ‘소비심리 위축(12.8%)이었음
- ‘과당경쟁’ (11.5%)과 ‘임금상승’ (9.5%) 등도 높은 편



[그림 8]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영애로사항

-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7.3%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자금지원의 형태로 제도를 활용
 - 지원받은 정책지원 형태별로 보자면 ‘자금지원’ 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 (18.7%), ‘R&D/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 (9.2%), ‘보증’ (7.1%), ‘장비’ (5.7%) 순
 - 인력과 연구개발 위주로, 창업이나 교육, 판촉 및 홍보에 대한 지원 기대는 미미한 수준
 - 평균 지원 금액은 약 75.9백만 원이었으며, 물류(104.5백만 원)와 관광(103.1백만 원)의 지원금액이 높은 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문화는 평균 19.5백만 원에 불과
-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수요조사에 있어서도 ‘자금지원’ 이 62.1%로 압도적
 - ‘판촉 및 홍보’ (12.3%), ‘기술정보지원’ (7.2%), ‘인력지원’ (4.4%) 는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다고 응답



[그림 9] 지식기반서비스업 필요한 지원 정책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생리
포
트

■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2)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오도영 (LSE지역 및 도시계획 박사과정)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2)

박희석 · hspark@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오도영 · doarch.oh@gmail.com

LSE 지역 및 도시계획 박사과정

1. 영국 창조산업의 주요정책 방향
2. 전문가 인터뷰: 킹스 컬리지 런던의 로베르타 코뮤니안 교수
3. 전문가 인터뷰: 네스타의 후안 마테오스 가르시아 연구원
4. 정책시사점

1. 영국 창조산업의 주요 정책방향

영국의 창조산업 발전 단계는 크게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부터 2004년까지, 창조경제프로그램(Creative Economy Programme)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창조영국(Creative Britain) 보고서가 발간된 2008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 마지막으로 보수당이 집권을 시작한 2010년 중반 이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과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창조산업 발전 1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의 창조산업 발전 1기는 1997년 보수당이 집권을 시작한 이후 창조산업의 개념이 처음 정립된 시기이다. 1997년 창조산업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1998년과 2001년에 두 개의 주요 보고서를 발간하여 창조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을 이 시기의 주요 업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창조산업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추후 창조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창조산업의 영국 경제 기여도를 최초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각 지자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런던 시 역시 창조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에 창조산업위원회(Commission on the creative industries)를 설립하여 런던의 창조경제에 대해 평가와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 밖에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영국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 등 다양한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조직되었다.

2. 영국 창조산업 발전 2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창조산업 발전 2기는 2005년 11월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주요 연구 과제인 창조경제프로그램이 실행된 시점에서부터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영국정부가 창조산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기여를 지칭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창조경제’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후 각 산업별로 창조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창조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과 더불어 영국의 주요 창조경제 싱크탱크인 워크파운데이션(The Work Foundation)이 2007년 발행한 보고서¹⁾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여덟 가지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수요: 창조산업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증대하는 것이 창조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제시됨.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해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2) 다양성: 창조산업 내의 다양성을 키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분야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3) 공평한 경쟁의 장: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창조산업 제품의 범위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
- (4) 교육과 기술: 보고서에 의하면 창조산업의 몇몇 분야에 기술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창조적 아이디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파할 필요성이 있음
- (5) 네트워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노하우와 기술을 전파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이 장려되어야 함
- (6) 정부 지원: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영국 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 또한 공공지원을 통해 각 산업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7)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로써, 이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함
- (8) 기업역량: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창조산업 분야에 존재하며, 이들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력을 도입하고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

1) The Work Foundation,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 2007

3. 영국 창조산업 발전 3기 (2008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

영국의 창조산업 발전 3기는 고든 브라운이 본격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수당 집권 이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주요 전략들이 담겨져 있는 2008년 2월 발간된 창조영국(Creative Britain) 보고서²⁾가 발간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된 것들을 들 수 있다. 창조영국 보고서에서는 워크파운데이션의 2007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미디어체육부, 사업·기업·규제개혁부, 혁신·대학·기술부 등 여러 정부기관을 넘나드는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교육, 일자리 등 여덟 개의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 26개의 선언 중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모든 어린이들에게 창조 교육을 실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Find Your Talent’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 (2) 창조산업 일자리 지원: 청소년들이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창조산업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에 중점을 두며, 14-25세 인구를 대상으로 창조산업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2013년까지 5,000개 이상의 견습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3) 연구와 혁신 지원: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를 통해 천만파운드(약 170억원)의 규모의 창조산업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창조산업에 대한 연구와 혁신 지원
- (4) 창조산업 기업의 성장 및 재정 지원: 영국예술위원회, 지역발전기구 등의 기관 등을 통해 창조산업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재정지원을 수행
- (5)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터넷 상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법제화
- (6) 창조 클러스터 지원: 지역발전기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전략체계를 도입하고 통합 미디어 센터를 개서하는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창조 클러스터의 발전을 지원
- (7) 영국을 세계적인 창조산업 허브로 조성: 영국 무역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을 통해 창조산업 5개년 전략을 실행하고, 창조 비즈니스 컨퍼런스

2) DCMS,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2008

를 개최하는 등 영국이 창조산업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8) 지속적인 전략 보완: 창조경제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제 발전 단계에 맞춰 전략을 지속 보완

위와 같은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일례로 2009년 발간된 디지털영국(Digital Britain) 보고서³⁾에서는 정보산업과 창조산업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지원이 실시되었다.

4. 영국 창조산업 발전 4기 (201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보수당이 집권을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창조산업 발전 4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영국의 창조산업이 발전하였다기보다는 혼란을 겪은 시기로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고, 창조산업 관련 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지역발전기구, 영국영화진흥위원회 등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로 편입되었다. 2010년 발행된 워크파운데이션의 보고서⁴⁾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경기에 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는 창조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창조산업을 영국 경제성장의 중요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창조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3) BIS & DCMS, <Digital Britain: Final Report>, 2009

4) The Work Foundation, <A Creative Block?: The future of the UK creative industries>, 2010

2. 전문가 인터뷰: 킹스 컬리지 런던의 로베르타 코뮤니안 교수

킹스 컬리지 런던은 증대되는 창조산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문화미디어창조산업 학부를 설치하여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계시킨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를 실시한 로베르타 코뮤니안(Roberta Comunian) 교수는 2012년부터 킹스 컬리지 런던에 합류하였으며, 지역경제발전과 창조산업의 역할, 문화예술을 통한 도심재생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인터뷰는 2013년 10월 23일 킹스 컬리지 런던에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조경제 관련 기구와 관련된 질문에서 코뮤니안 교수는 관련 기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이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2000년도 경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기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기업들이 영국의 창조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영국문화원, CIDA (The Creativity and Innovation Company) 등이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그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뮤니안 교수는 창조산업이 현재까지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창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큰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영국문화원의 각종 홍보활동과 더불어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미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아닌 창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었다. 코뮤니안 교수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창조산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보았다. 정부는 웹사이트나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이 서로 한 자리에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공식적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접근 방법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뮤니안 교수는 대학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영국의 창조산업 발전에

는 대학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 현재 영국에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창조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곳들에서 창조산업과 관련된 세계 수준의 창조적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은 현재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 글래스고 예술 대학이 분교를 설립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안 교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수요보다 학생들의 공급이 많은 점이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3. 전문가 인터뷰: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의 후안 마테오스 가르시아 연구원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이하 네스타)는 지난해에 설명하였듯이 1998년 정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하여 창조산업 분야를 포함한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후안 마테오스 가르시아(Juan Mateos-Garcia) 연구원은 2008년부터 네스타에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뷰는 2013년 10월 24일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네스타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현재 네스타는 벤처기업 투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무 프로그램, 연구 등 총 네 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 분야에서는 현재 약 12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범위는 현재 영국 전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창조경제의 발전에 있어 기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여러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디자인 위원회(Design Council),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창조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후안 마테오스 가르시아 연구원은 이러한 발전은 대부분 런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특히 런던 올림픽 및 테크시티와 같은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창조산업과 관련된 여러 계획들 역시 런던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런던

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창조산업이 시작되어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영국의 다른 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브라이튼, 브리스톨 등 창조산업 육성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다른 도시들 역시 지리적 이점이나 고유의 산업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룬 반면,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대학이나 네트워크, 자본 등을 투입해 창조산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은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고, 그 결과를 얻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았다.

정권 교체 이후 창조산업 관련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권 이양 초기에는 창조산업 관련 정책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으나, 보수당 역시 창조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창조산업 관련 부서의 예산이 감축되고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부구조의 재편성은 모든 분야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정부가 창조산업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4. 정책시사점

영국의 창조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등이 상호연계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창조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한 점 또한 영국 창조경제의 성공을 뒷받침 하는 요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사례 중 특히 런던의 사례를 되돌아볼 때,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다양한 창조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여러 교육기관 등이 위치하여 있어 우리나라에서 창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창조산업의 발전 기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조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서울시 역시 창조산업이 허브로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쓴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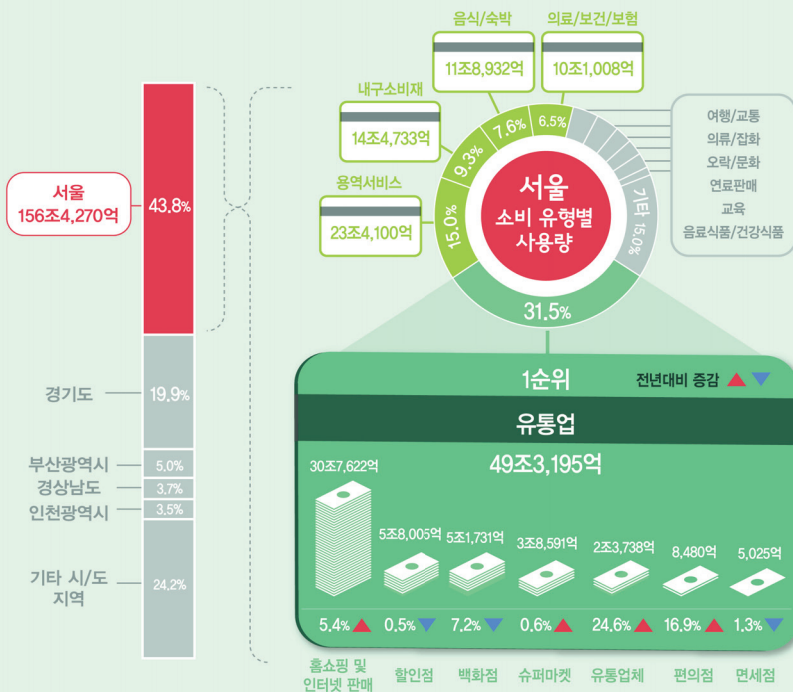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쓴 곳은?

LSE 지역 및 도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 시민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서울 전체 신용카드 사용량 156조 중 '유통업'이 31.5%로 최고



서울 전체 신용카드 사용량 156조 중 ‘유통업’ 이 31.5%로 최고

- 서울 시민의 신용카드 사용량은 156조로 전국의 43.8% 차지하며, ‘유통업’에 가장 많이 사용
 - 전국 18개 시도중 서울이 156조4,270억으로 최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71조2,537억, 부산광역시 17조7,225억, 경상남도 13조1,006억, 인천광역시 12조3,669억 순
 - 소비 유형 중 ‘유통업’이 49조3,195억으로 서울 전체 사용량의 31.5%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용역서비스’ 23조4,100억, ‘내구소비재’ 14조4,733억, ‘음식/숙박’ 11조 8,932억, ‘의료/보건/보험’ 10조1,008억순

〈표 1〉 최근 1년간 전국 시·도 신용카드 사용액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용액	비율	시·도	사용액	비율
서울	156,426,970	43.8%	광주광역시	8,619,200	2.4%
경기도	71,253,665	19.9%	전라북도	7,363,633	2.1%
부산광역시	17,722,485	5.0%	강원도	6,725,763	1.9%
경상남도	13,100,615	3.7%	충청북도	6,493,855	1.8%
인천광역시	12,366,940	3.5%	전라남도	6,222,896	1.7%
대구광역시	10,847,111	3.0%	울산광역시	5,133,534	1.4%
경상북도	9,809,724	2.7%	제주도	3,643,904	1.0%
충청남도	9,467,582	2.6%	기타	3,515,870	1.0%
대전광역시	8,741,514	2.4%	전국	357,455,260	100.0%

주) 최근년 2012년 10월 ~ 2013년 9월

- ‘유통업’ 중 ‘홈쇼핑 및 인터넷 판매’는 31조(61.4%)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전년 대비 5.4% 증가
 - ‘홈쇼핑 및 인터넷 판매’가 30조7,622억으로 ‘유통업중’의 62.4% 차지
 - 그 다음으로는 ‘할인점’ 5조8,005억, ‘백화점’ 5조1,731억, 슈퍼마켓 ‘3조8,591억 유통업체’ ‘2조3,738억’순
 - 전년대비 증가한 유통업체는 ‘유통업체’ 24.6%, ‘편의점’ 16.9%, ‘홈쇼핑 및 인터넷 판매’ 5.4%, ‘슈퍼마켓’ 0.6%순

〈표 2〉 최근 1년간 서울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사용액

(단위 : 백만원)

항목	사용액	비율	항목	사용액	비율
유통업	49,319,511	31.5%	여행/교통	5,795,461	3.7%
기타	23,528,027	15.0%	의류/잡화	5,147,680	3.3%
용역서비스	23,410,036	15.0%	오락/문화	3,896,746	2.5%
내구소비재	14,473,292	9.3%	연료판매	3,588,487	2.3%
음식/숙박	11,893,167	7.6%	교육	3,412,603	2.2%
의료/보건/ 보험	10,100,772	6.5%	음료식품/ 건강식품	1,861,189	1.2%
			합계	156,426,970	100.0%

주) 기타: 코드 분류가 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금액

〈표 3〉 최근 1년간 서울의 유통업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대비 증감

(단위 : 백만원)

항목	사용액	비율	전년대비증감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	29,184,093	61.4%	5.4%
할인점	5,829,808	12.3%	-0.5%
백화점	5,576,148	11.7%	-7.2%
슈퍼마켓	3,834,639	8.1%	0.6%
유통업체	1,905,487	4.0%	24.6%
편의점	725,752	1.5%	16.9%
면세점	509,063	1.1%	-1.3%
합계	47,564,989	100.0%	3.7%

주) 유통업체: 농수축 직판장, 연금매장

주)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내 사용량
자료 :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한국은행)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 동 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용**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 출 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약 | 10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0.9로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 10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2.1%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3,894억원으로 전국(6조3,090억원)의 37.9%를 차지
- 10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7%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4.5% 증가

고
용

- 서울의 10월 취업자 수는 51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3천명(2.2%)이 증가
-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1.0%p 증가,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물
가

- 2013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0(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남지역(0.04%) 특히 금천구(0.43%)와 구로구(0.17%)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7% 상승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 역시 강남지역(1.18%) 특히 금천구(1.84%)와 송파구(1.80%)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14%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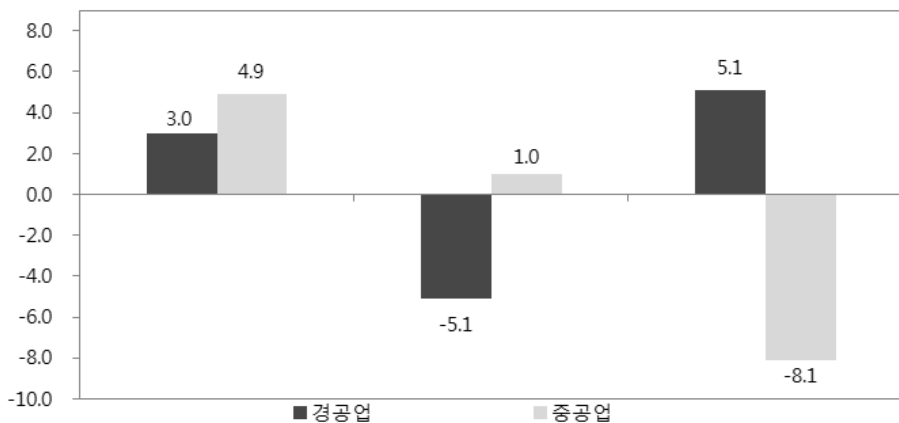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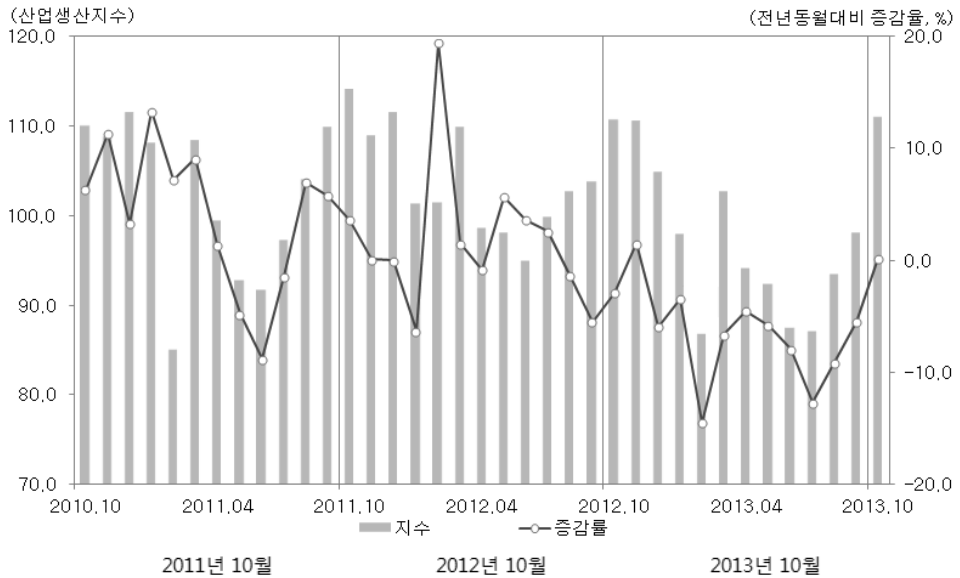
- 서울의 10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73조 2,381억 원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그 중 가계대출은 177조 6,358억 원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수 2,106개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1.2% 증가
- 서울의 10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1.4% 증가

수
출
입

- 서울의 10월 수출은 53.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0월 수입은 12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10월 제조업생산지수 110.9(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1% 상승, 중공업부문은 8.1% 감소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가죽 및 신발(51.8%), 섬유제품(43.7%), 의복 및 모피(3.1%) 등 증가, 의료 및 정밀광학(-19.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8.4%), 식료품(-3.7%)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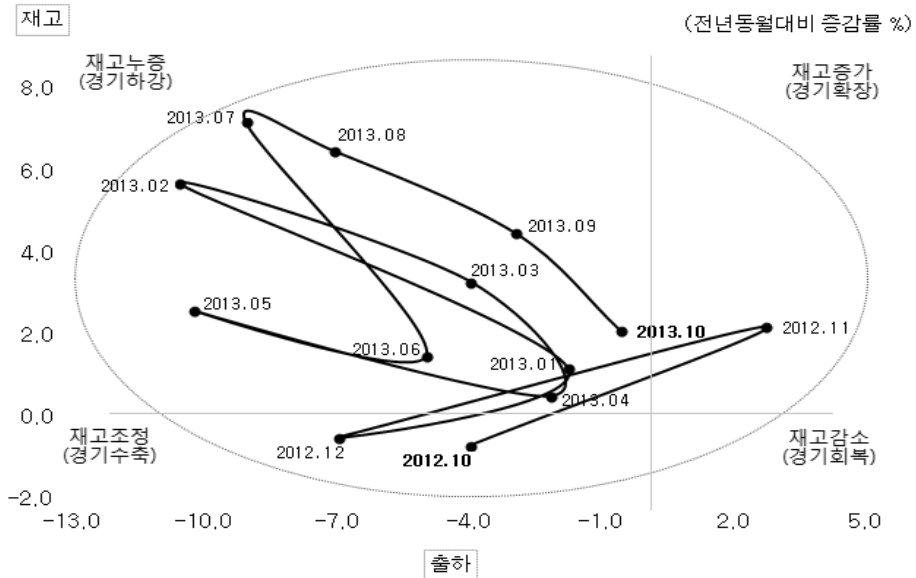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10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10월 출하지수는 112.0(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서울의 10월 재고지수는 112.6(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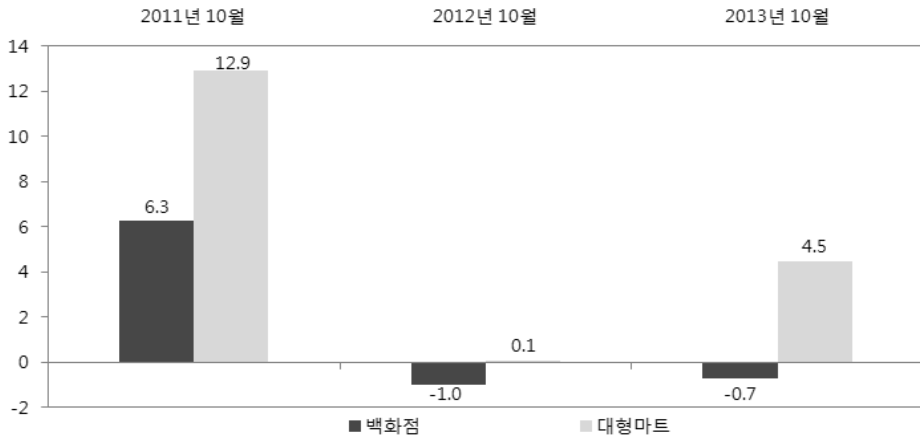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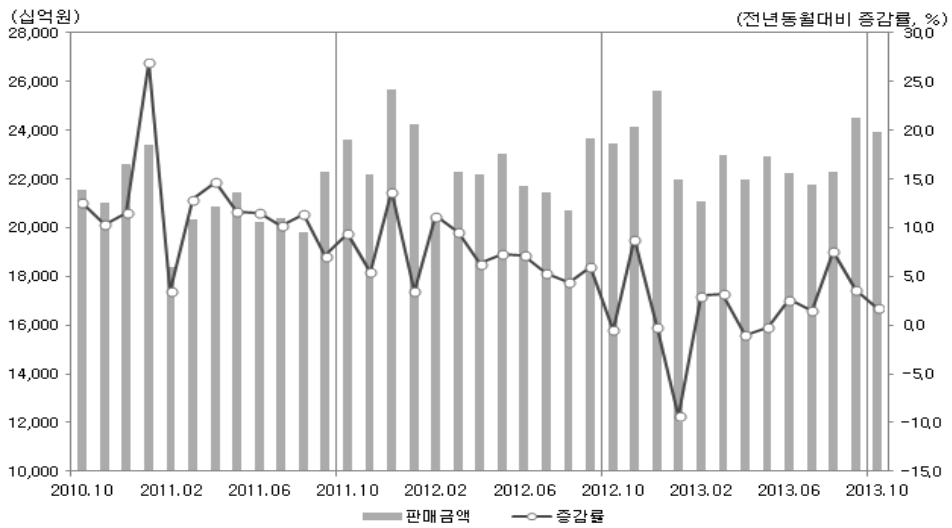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3,894억원으로 전국(6조3,090억원)의 37.9%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981억원으로 전국(2조6,127억원)의 45.9%,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913억원으로 전국(3조6,963억원)의 32.2%를 차지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2.4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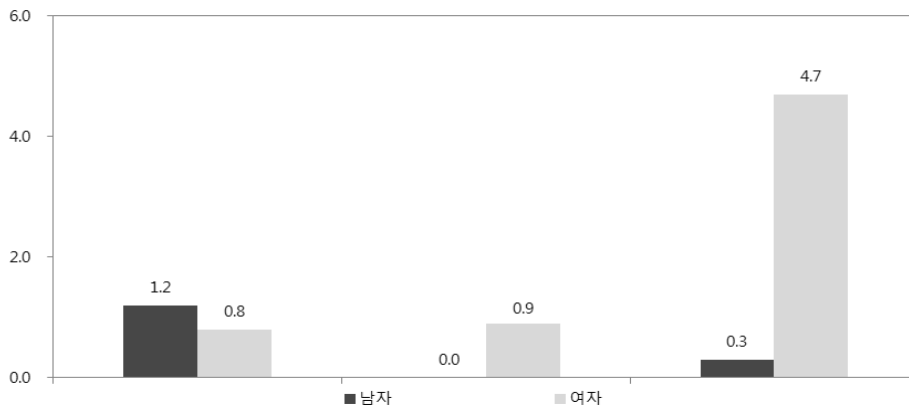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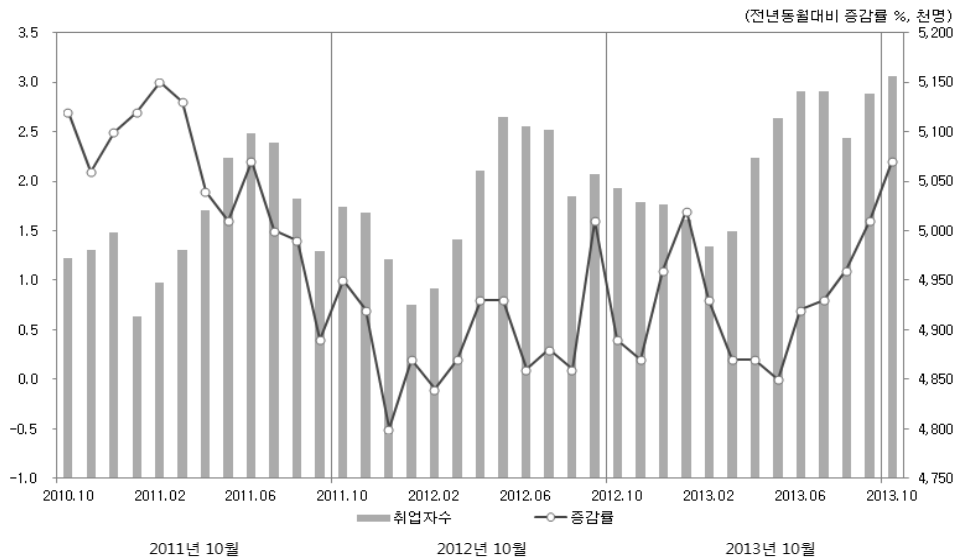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업·자 |

■ 서울의 10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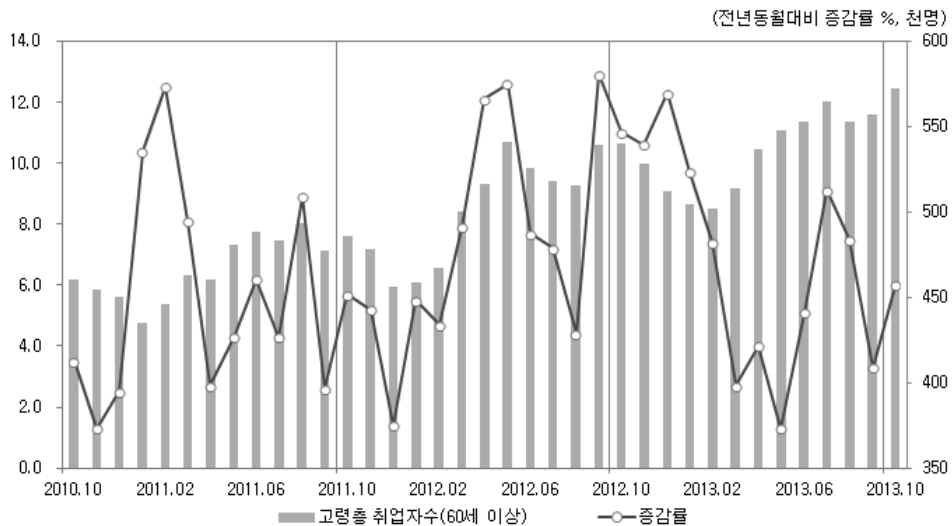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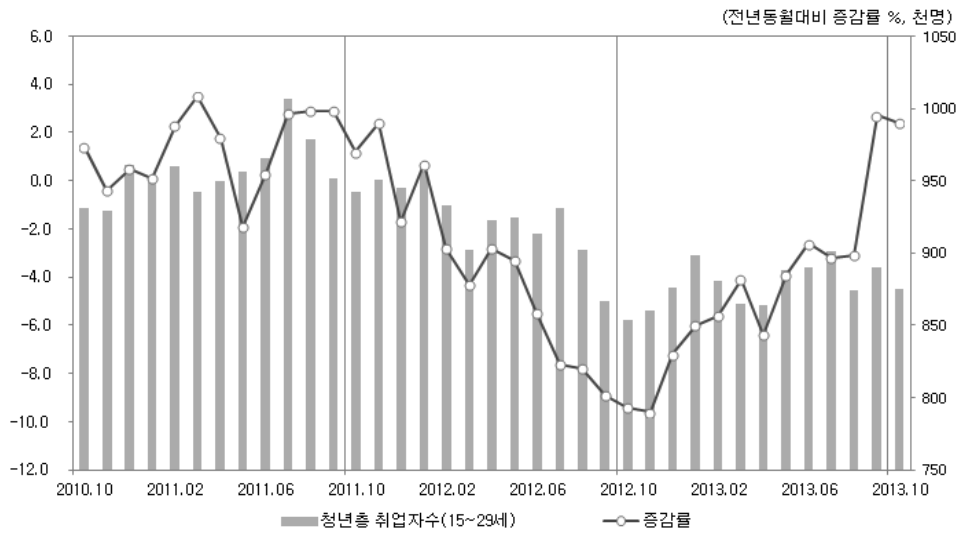
- 서울의 10월 취업자는 51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3천명(2.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4천명, 여자는 228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9천명(0.3%), 여자는 10만3천명(4.7%)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4만1천명(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6만9천명(3.4%),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3만8천명(2.9%)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세 2개월 연속 유지
 - 서울의 10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2013년 10월 고령층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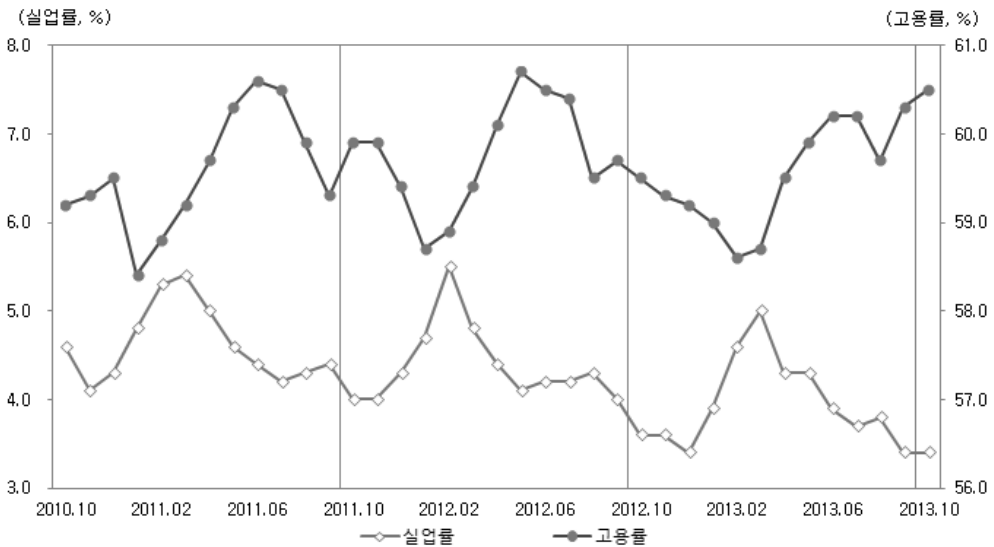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10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동일
 -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1.0%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3%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자는 51.5%로 1.9%p 각각 증가
 - 2013년 10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5%)와 동일한 수준

- 서울의 10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0월 실업자는 1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2.3%)이 감소
 -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여자는 3.0%로 0.3%p 감소
 - 2013년 10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2.8%)에 비하여 0.6%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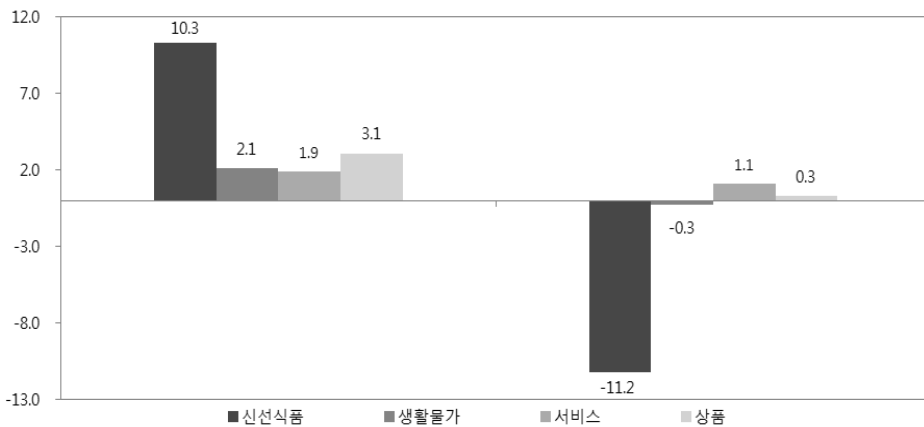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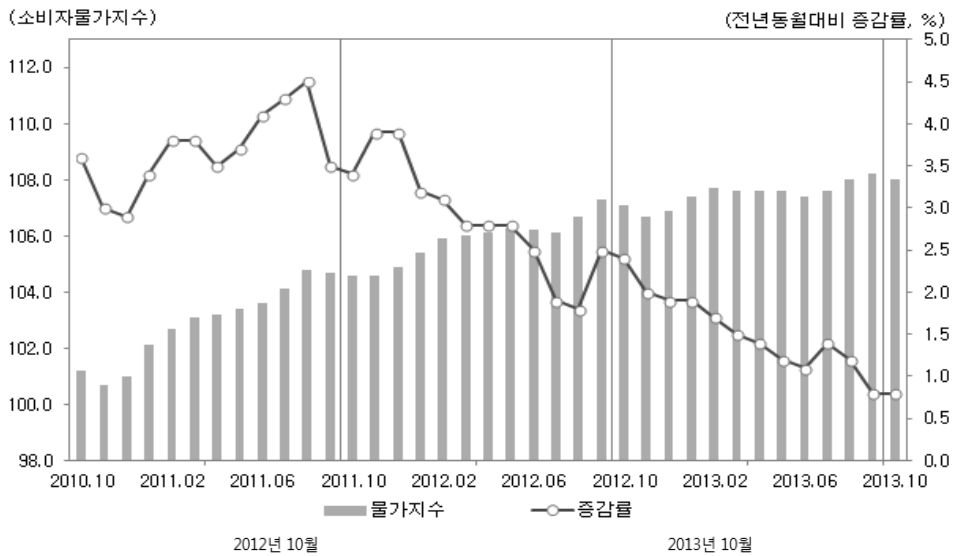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0(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1%), 교통(-1.2%), 교육(-0.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1%), 통신(-0.1%)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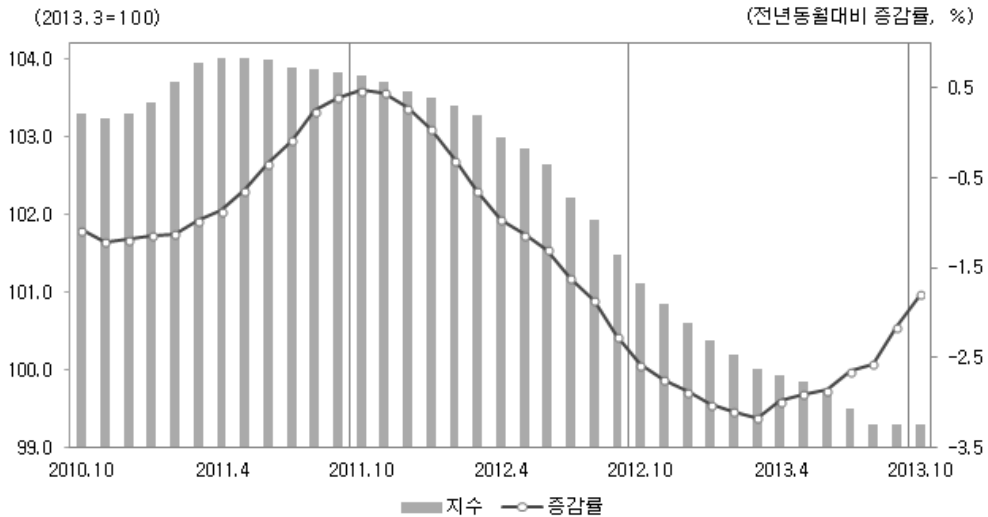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7% 상승
 - 강북지역(0.04%), 강남지역(0.09%)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금천구(0.43%), 성북구(0.29%), 은평구(0.21%), 구로구(0.17%)
 - 아파트(0.09%), 연립주택(0.23%), 단독주택(0.19%)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10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20% 상승
 - 광역시(0.34%), 기타지방(0.32%), 수도권(0.10%)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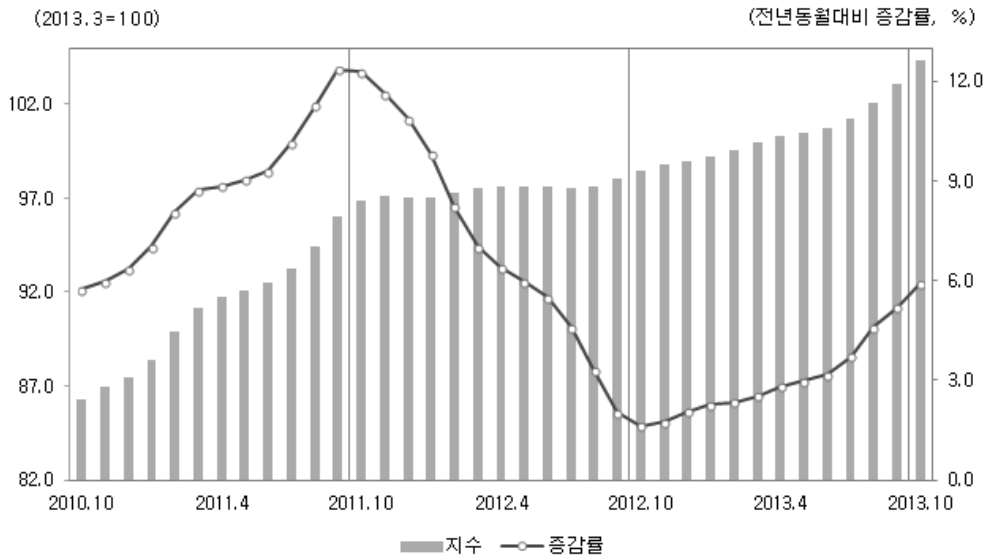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가,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매매가격(1,628.6만원)은 전월(1,629만원)대비 0.03% 감소
 - 매매거래건수(7,577건)는 전월(4,205건) 대비 80.2% 증가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1.14% 상승
 - 강남지역(1.18%), 강북지역(1.00%)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중구(2.62%), 금천구(1.84%), 송파구(1.80%), 도봉구(1.67%)
 - 아파트(1.50%), 연립주택(0.70%), 단독주택(0.56%)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10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89% 상승
 - 수도권(1.23%), 기타지방(0.56%), 광역시(0.42%)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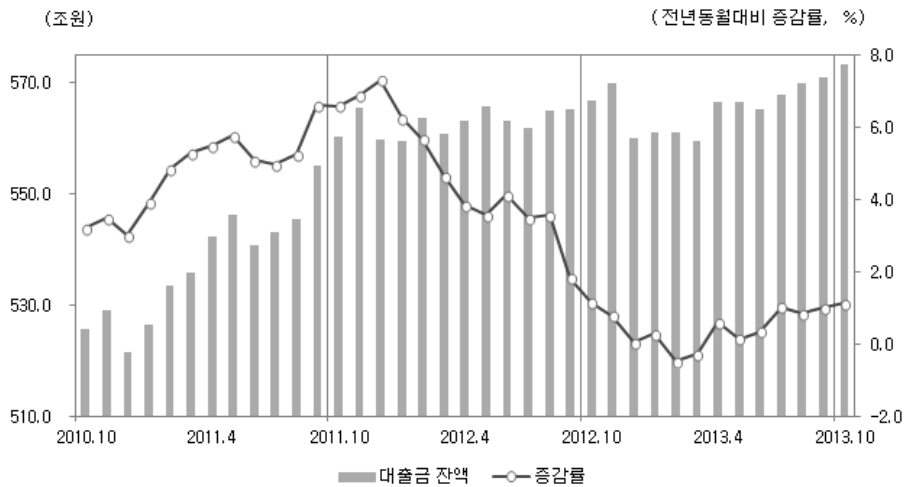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평균 946만원)은 전월(930만원)대비 1.7% 증가
 - 전세거래건수(8,061)는 전월(6,753건) 대비 19.4% 증가

| 가 · 계 · 대 · 출 |

- 10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73조 2,381억원)은 전월(570조 9,783억원)대비 0.40%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65조 289억원)과 비예금은행(108조 2,092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2%, 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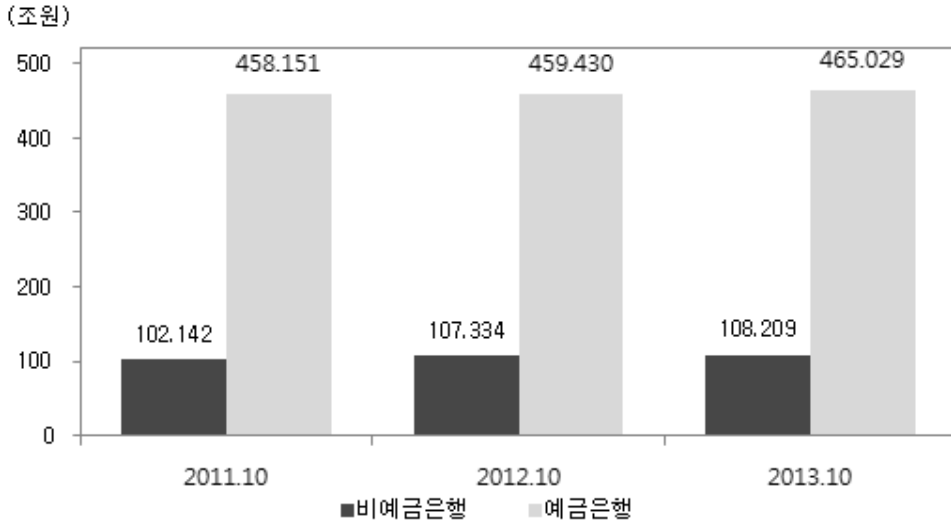
- 10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09조 2,840억원)은 전월(1,492조 870억원)대비 0.77%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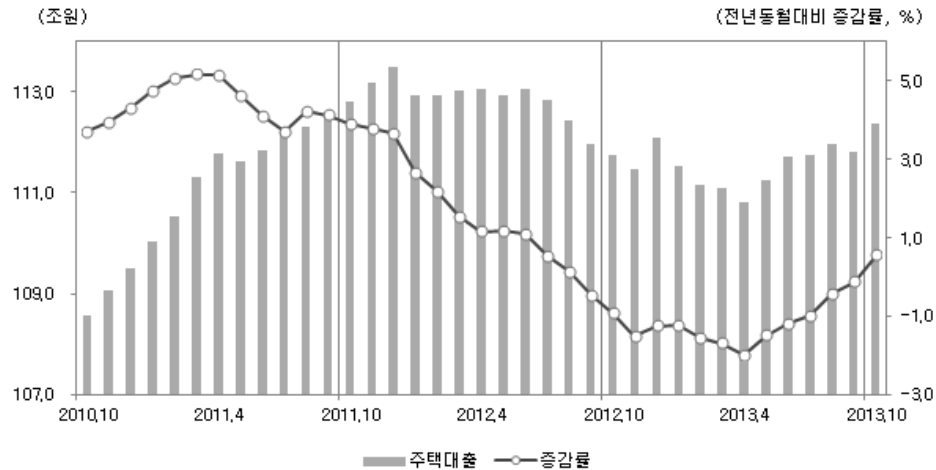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0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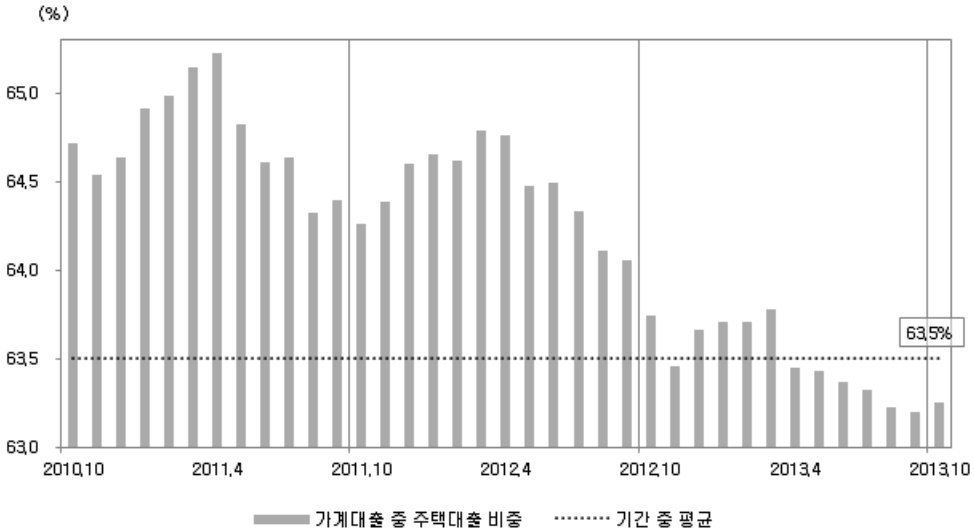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7조 6,358억원)은 전월(176조 9,079억원)대비 0.4%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2조 3,670억원)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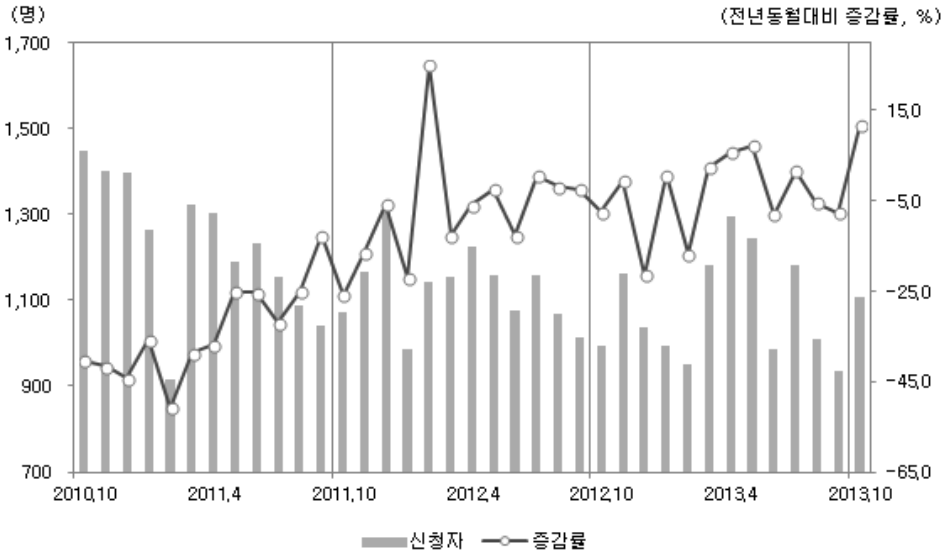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10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개인파산 신청자(1,109명)은 전월대비 11.6% 증가,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5.6%)은 전년동월대비 625.0%p 증가, 면책 기각률(5.7%)은 전년동월대비 427.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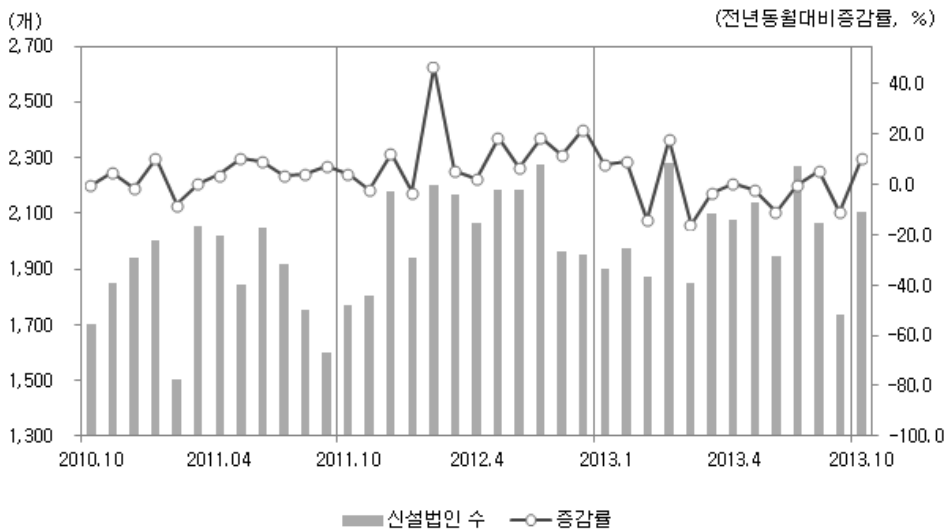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설·및·부·도·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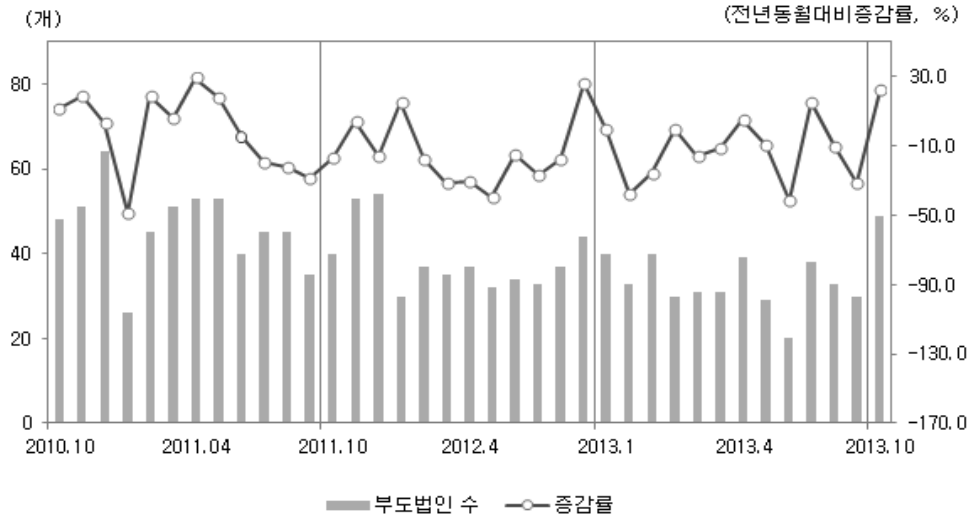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06개로 전월대비 21.2%(369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0.7%(203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전월대비 각각 29.9%(26개), 21.7%(305개), 14.7%(35개) 증가

- 서울의 10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9개로 전월대비 63.3%(19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22.5%(9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각각 128.6%(9개), 46.7%(7개), 28.6%(2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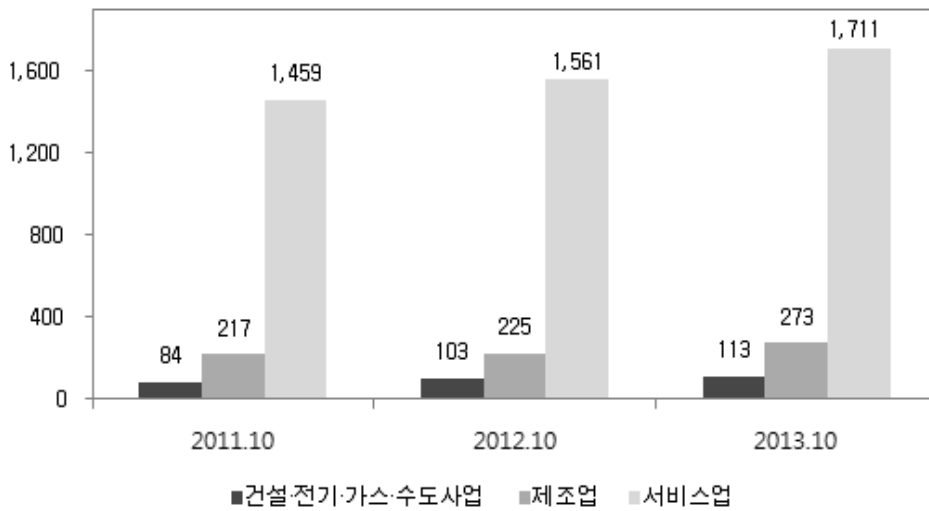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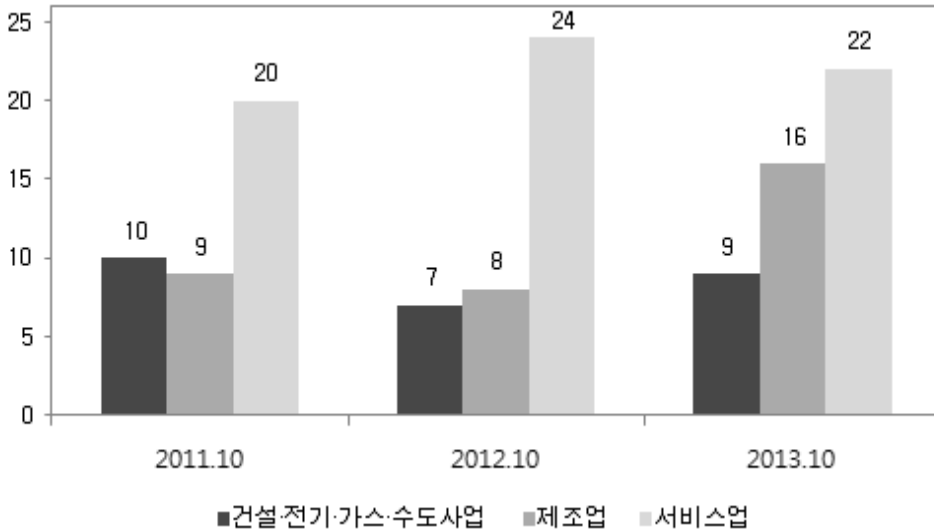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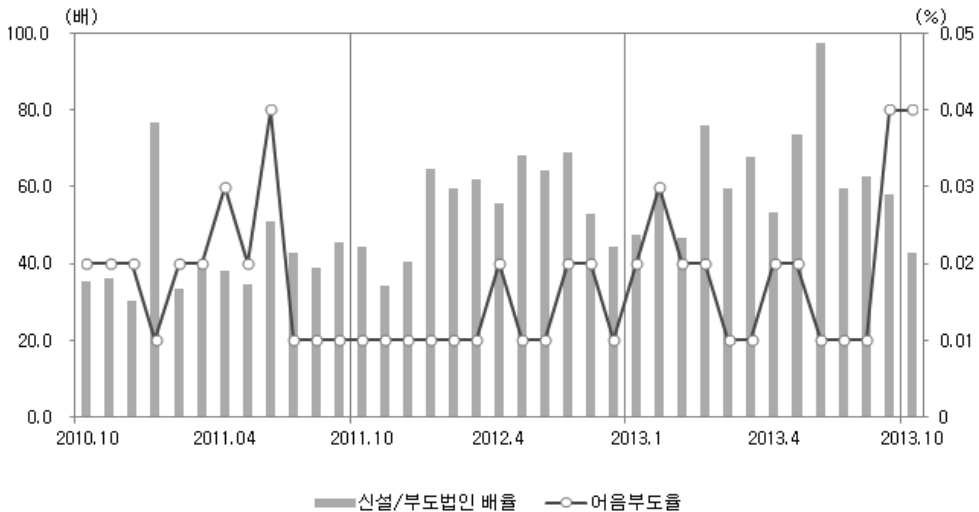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10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4%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3.0배로 전월 (57.9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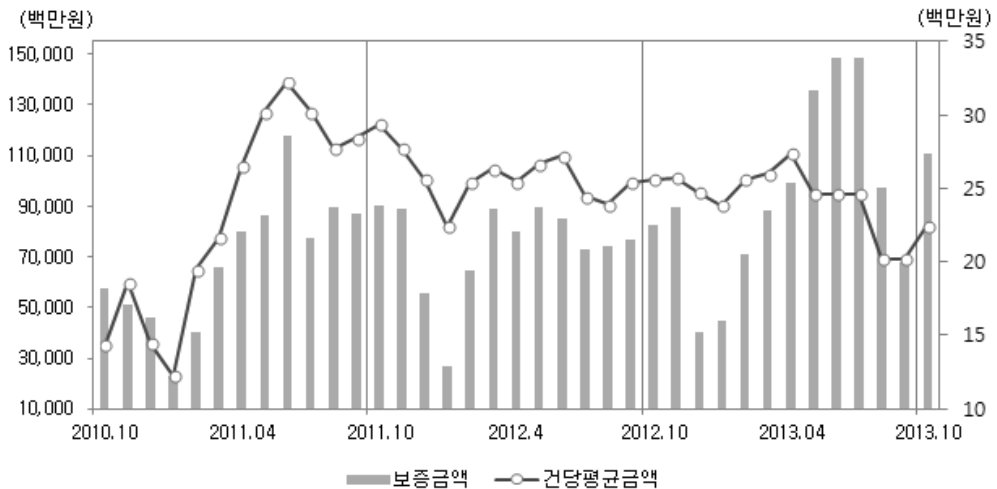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10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10,459백만원, 4,914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62.8%, 46.4%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1.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34.0%, 52.6%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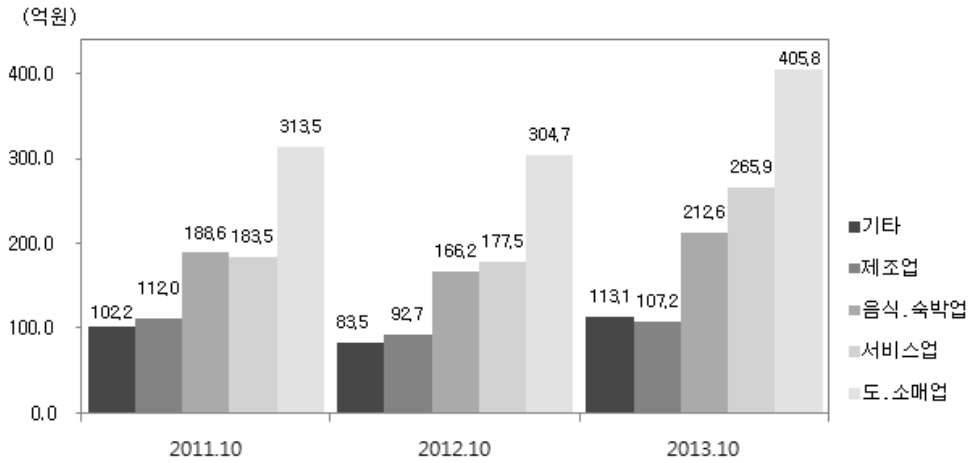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10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증가
 - 10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7%로 전월(8.7%) 대비 1.1%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6.7%로 전월(36.5%) 대비 0.3%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8.0%로 전월(6.6%)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6.0%로 전월(35.3%)대비 0.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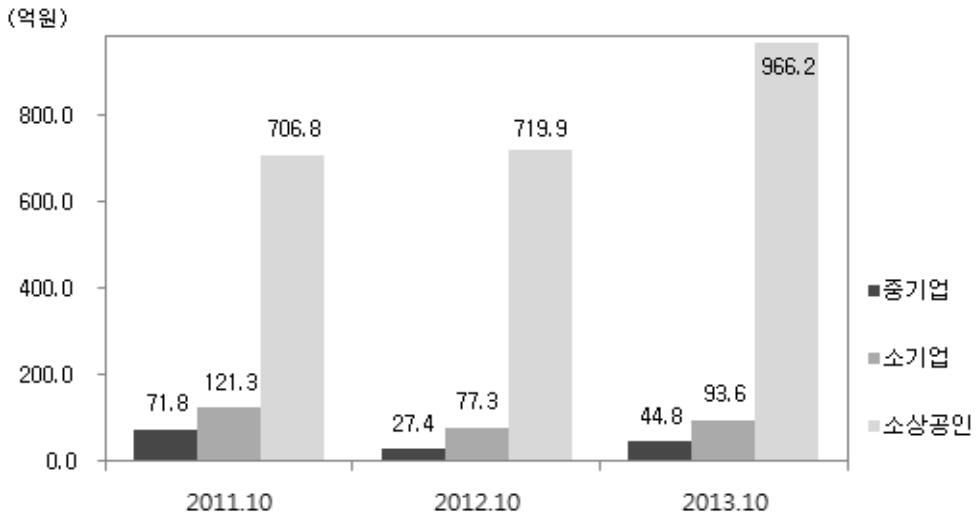
■ 서울의 10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7.5%로 전월대비 2.5%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5.5%로 전월대비 0.1%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5%로 전월대비 1.5%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2.9%로 전월대비 보합수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1%로 전월대비 1.0%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6%로 전월대비 0.1%p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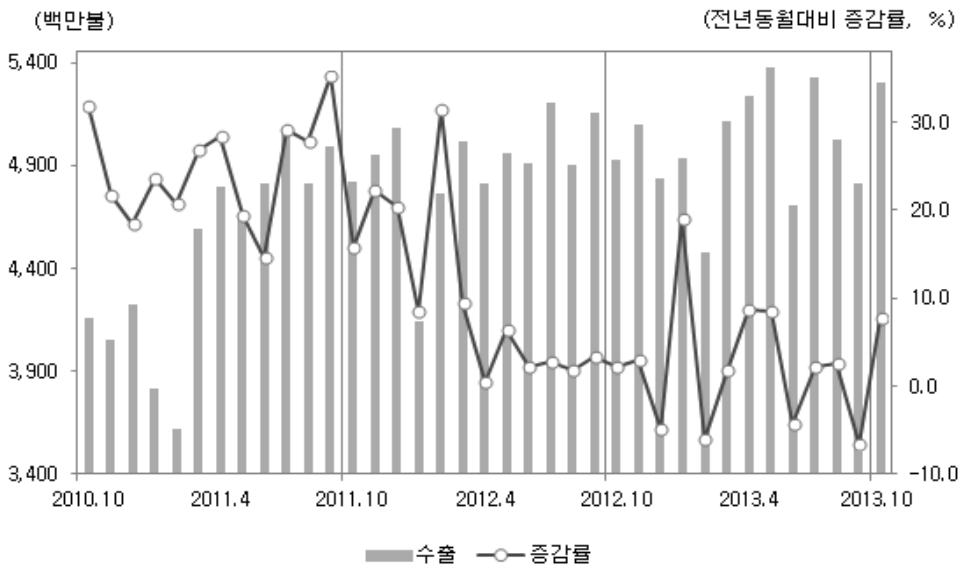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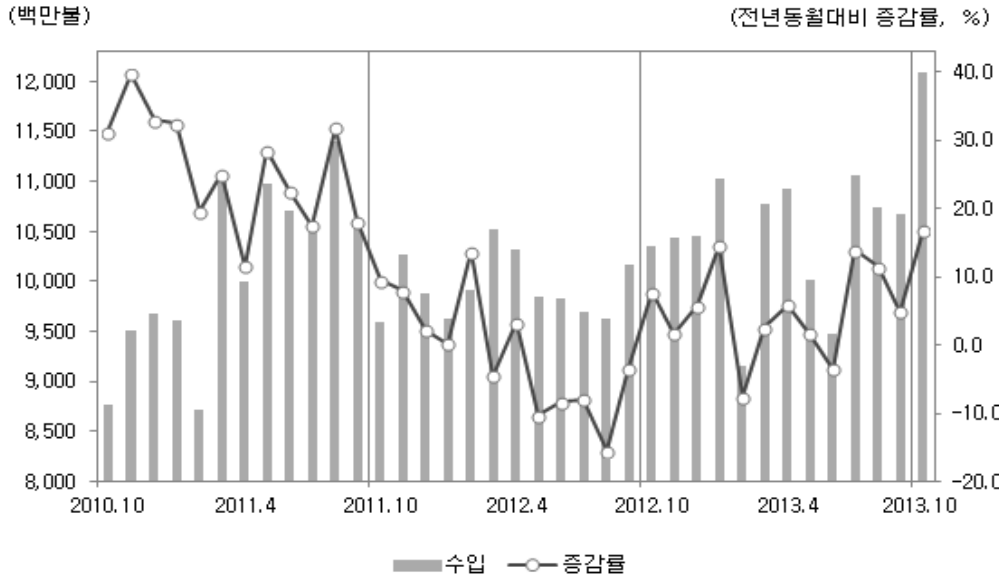
- 서울의 10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3.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고 수입은 121.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 전국의 수출은 504.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하였고 수입은 456.1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서울의 10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18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20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의류, 자동차, 컴퓨터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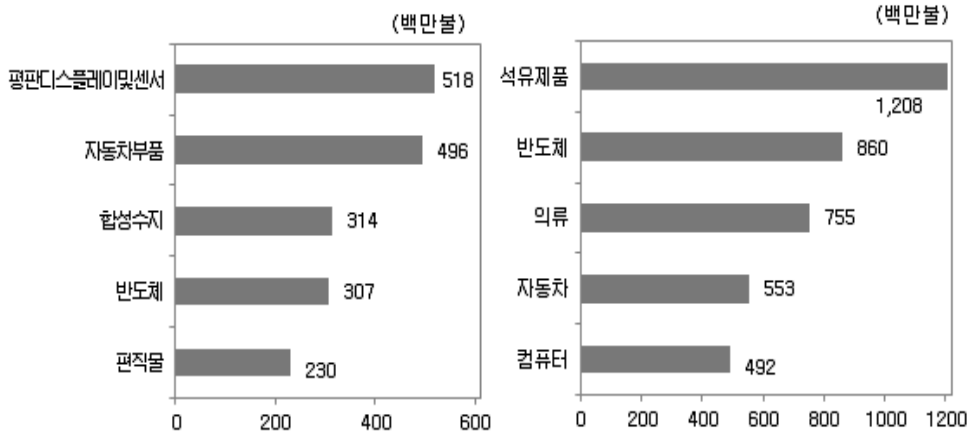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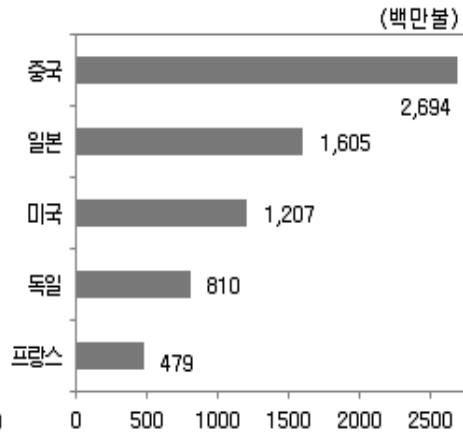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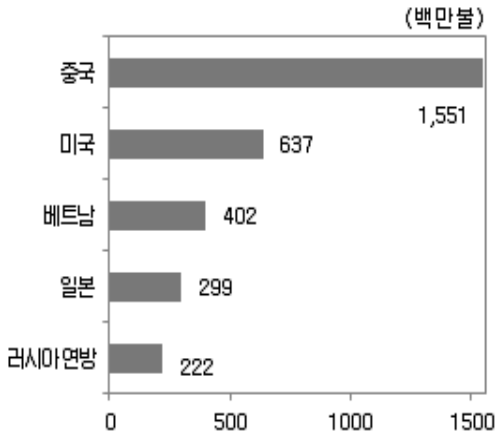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0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한 1,55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연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한 2,69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SEOUL ECONOMIC BULLETIN

부록: 통계표

부록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부 동 산

■ 금 용

1. 광공업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3.	1/4	102.5	98.2	110.2	102.8	106.9	109.3
	2/4	89.8	96.5	91.3	99.1	104.1	107.8
	3/4p	89.5	96.7	89.5	99.5	111.3	110.1
2011.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105.0
	2	94.6	98.9	104.1	104.7	106.9	109.1
	3	105.8	100.3	112.0	103.9	106.9	109.3
	4	95.0	96.1	100.3	100.7	103.0	104.5
	5	90.0	96.0	86.8	94.4	105.2	106.7
	6	84.5	97.5	86.7	102.1	104.1	107.8
	7	84.0	92.2	83.6	96.4	110.0	110.8
	8	89.4	96.5	89.6	98.9	110.4	111.3
	9p	93.1	98.9	93.0	100.4	112.0	110.8
	10p	108.2	103.6	104.9	101.6	114.4	111.3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 1/4	-5.0	-7.0	102.5	-0.7	-4.4	110.2	3.1	3.3	106.9
2/4	-1.7	-5.2	89.8	-3.6	-4.5	91.3	-1.4	1.5	104.1
3/4p	0.2	-8.0	89.5	0.4	-5.3	89.5	2.1	4.1	111.3
2011.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6.8	-1.8	107.1	-3.6	0.2	114.6	-0.9	1.2	106.4
2	3.8	-13.0	94.6	4.9	-9.6	104.1	3.9	5.7	106.9
3	1.4	-6.1	105.8	-0.8	-3.7	112.0	0.2	3.3	106.9
4	-4.2	-3.7	95.0	-3.1	-1.4	100.3	-4.4	0.5	103.0
5	-0.1	-4.9	90.0	-6.3	-8.4	86.8	2.1	2.6	105.2
6	1.6	-6.9	84.5	8.2	-4.0	86.7	1.0	1.5	104.1
7	-5.4	-11.9	84.0	-5.6	-8.2	83.6	2.8	7.2	110.0
8	4.7	-8.6	89.4	2.6	-6.8	89.6	0.5	6.5	110.4
9p	2.5	-5.7	93.1	1.5	-3.4	93.0	-0.4	4.8	112.0
10p	4.8	2.2	108.2	1.2	0.0	104.9	0.5	3.7	114.4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10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10	2013.9	2013.10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72	8,524	8,517	45	0.5
경제활동인구	5,231	5,320	5,340	108	2.1
(참가율)	(61.7)	(62.4)	(62.7)	(1.0p)	-
남 자	2,979	2,986	2,987	8	0.3
(참가율)	(73.0)	(73.0)	(73.1)	(0.1p)	-
여 자	2,252	2,335	2,353	101	4.5
(참가율)	(51.3)	(52.7)	(53.1)	(1.8p)	-
취 업 자	5,043	5,138	5,156	113	2.2
(고용률)	(59.5)	(60.3)	(60.5)	(1.0p)	-
농림어업	8	4	6	-1	-18.7
광공업	511	493	499	-13	-2.5
· 제조업	511	491	496	-15	-2.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524	4,641	4,651	127	2.8
· 건설업	357	334	336	-22	-6.0
· 도소매·음식숙박업	1,326	1,347	1,364	38	2.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17	2,083	2,086	69	3.4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24	877	865	41	5.0
실 업 자	188	182	184	-4	-2.3
(실업률)	(3.6)	(3.4)	(3.4)	(-0.2p)	-
비경제활동인구	3,241	3,204	3,178	-63	-1.9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2013년 10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10	2013.9	2013.10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5,043	5,138	5,156	113	2.2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396	1,524	1,491	96	6.8
	사무종사자	1,058	1,039	1,072	14	1.3
	서비스판매종사자	1,201	1,224	1,227	26	2.2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2	7	8	-5	-38.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76	1,345	1,358	-18	-1.3
성 별	남자	2,865	2,875	2,874	9	0.3
	여자	2,178	2,264	2,281	103	4.7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29	1,099	1,099	-31	-2.7
	자영업주	964	937	939	-26	-2.7
	무급가족종사자	165	162	160	-5	-3.0
	임금근로자	3,914	4,039	4,057	143	3.7
	상용근로자	2,396	2,592	2,565	169	7.1
	임시근로자	1,106	1,098	1,131	25	2.3
	일용근로자	412	349	361	-51	-12.4
취 업 시 간 대 별	36시간 미만	577	581	535	-42	-7.3
	1-17시간	205	191	197	-8	-3.8
	18-35시간	372	390	338	-34	-9.2
	36시간 이상	4,405	4,502	4,570	165	3.7
	36-53시간	3,189	3,453	3,425	236	7.4
	54시간이상	1,216	1,049	1,145	-71	-5.8
	일 시 휴 직	61	55	51	-10	-16.9
	주당평균취업시간	45.2	44.3	45.0	-0.2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9.	10	4,840	-1.4	192	3.4	3,306	3.2
	11	4,879	-0.4	216	11.3	3,248	1.8
	12	4,877	0.5	208	6.6	3,261	0.7
2010.	5	4,995	2.9	219	-9.1	3,167	-1.7
	6	4,988	2.0	221	-5.8	3,177	-0.7
	7	5,013	3.1	234	-4.8	3,144	-2.4
	8	4,962	3.6	223	-0.3	3,209	-3.4
	9	4,960	3.3	225	5.1	3,210	-3.3
	10	4,972	2.7	239	24.1	3,186	-3.6
	11	4,981	2.1	213	-1.5	3,206	-1.3
	12	4,998	2.5	224	7.3	3,184	-2.4
	2011.	5	5,074	1.6	243	11.1	3,097
6		5,098	2.2	236	6.7	3,079	-3.1
7		5,089	1.5	226	-3.5	3,093	-1.6
8		4,962	1.4	223	1.7	3,141	-2.1
9		4,979	1.4	223	107	3,141	-2.1
10		5,024	1.0	210	-12.0	3,147	-1.2
11		5,018	0.7	208	-2.4	3,150	-1.8
12		4,971	-0.5	223	-0.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3,220
	2	4,925	-4.0	287	13.0	3,168	-0.6
	3	4,991	0.2	253	-11.5	3,164	0.7
	4	5,061	0.8	233	-11.7	3,124	0.0
	5	5,115	0.8	216	-11.1	3,099	0.1
	6	5,105	0.1	226	-4.2	3,110	1.0
	7	5,102	0.3	221	-2.0	3,130	1.2
	8	5,035	0.1	224	-1.1	3,201	1.9
	9	5,057	1.6	212	-8.3	3,197	0.6
	10	5,043	0.4	188	-10.4	3,241	3.0
	11	5,029	0.2	188	-9.4	3,264	3.6
	12	5,027	1.1	178	-20.0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285	2.0
	2	4,984	0.8	241	-16.0	3,283	3.6
	3	4,999	0.2	265	4.7	3,251	2.7
	4	5,073	0.2	226	-2.9	3,224	3.2
	5	5,114	0.0	229	5.9	3,188	2.9
	6	5,141	0.7	211	-6.5	3,188	2.5
	7	5,141	0.8	196	-11.4	3,201	2.3
	8	5,093	1.1	201	-10.4	3,237	1.1
	9	5,138	1.6	182	-14.1	3,204	0.2
	10	5,156	2.2	184	-2.3	3,178	-1.9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3.3 = 100.0>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 격 종합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9	92.0	104.5	104.1	105.0	108.5	107.9	109.0
2010. 1	92.1	104.6	104.2	105.1	108.6	107.9	109.1
2	92.4	104.9	104.3	105.5	108.9	108.0	109.6
3	92.6	105.0	104.4	105.5	108.8	108.0	109.6
4	92.8	104.9	104.3	105.5	108.7	107.7	109.5
5	92.9	104.7	104.1	105.3	108.3	107.4	109.0
6	92.9	104.3	103.7	104.9	107.6	106.7	108.5
7	92.8	104.0	103.4	104.5	107.1	106.1	107.9
8	92.7	103.6	103.1	104.1	106.6	105.7	107.4
9	92.8	103.4	102.8	104.0	106.3	105.4	107.1
10	93.0	103.3	102.7	103.9	106.1	105.1	107.0
11	93.4	103.2	102.6	103.8	106.0	105.0	106.9
12	93.8	103.3	102.6	104.0	106.1	105.0	107.0
2011. 1	94.2	103.4	102.7	104.2	106.3	105.1	107.3
2	94.9	103.7	102.8	104.6	106.6	105.3	107.7
3	95.9	103.9	103.1	104.8	106.7	105.4	107.9
4	96.7	104.0	103.2	104.8	106.7	105.4	107.8
5	97.3	104.0	103.2	104.8	106.7	105.4	107.7
6	97.8	104.0	103.2	104.7	106.5	105.4	107.5
7	98.2	103.9	103.2	104.6	106.4	105.2	107.3
8	98.7	103.9	103.1	104.6	106.2	105.1	107.2
9	99.2	103.8	103.1	104.6	106.1	105.0	107.1
10	99.6	103.8	103.0	104.5	106.0	105.0	106.9
11	100.0	103.7	103.0	104.4	105.8	104.9	106.6
12	100.2	103.6	102.9	104.3	105.6	104.8	106.4
2012. 1	100.3	103.5	102.8	104.1	105.5	104.7	106.1
2	100.5	103.4	102.8	104.0	105.3	104.6	105.9
3	100.7	103.3	102.7	103.8	105.1	104.4	105.6
4	100.8	103.0	102.5	103.5	104.6	104.1	105.0
5	100.8	102.8	102.4	103.3	104.3	103.9	104.7
6	100.8	102.6	102.2	103.0	104.0	103.6	104.3
7	100.7	102.2	101.9	102.5	103.4	103.1	103.7
8	100.6	101.9	101.7	102.2	103.0	102.8	103.1
9	100.4	101.5	101.4	101.6	102.3	102.3	102.3
10	100.3	101.1	101.0	101.2	101.7	101.6	101.7
11	100.2	100.9	100.7	101.0	101.3	101.2	101.3
12	100.2	100.6	100.6	100.6	100.9	100.9	100.9
2013. 1	100.1	100.4	100.4	100.4	100.5	100.6	100.5
2	100.0	100.2	100.2	100.2	100.3	100.3	100.2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0	99.9	99.9	99.9	99.9	99.8	99.9
5	100.0	99.9	99.8	99.9	99.8	99.7	99.9
6	99.9	99.7	99.6	99.8	99.6	99.5	99.7
7	99.9	99.5	99.4	99.6	99.3	99.1	99.4
8	99.9	99.3	99.1	99.5	99.0	98.7	99.2
9	100.0	99.3	99.0	99.5	98.9	98.6	99.2
10	100.2	99.3	99.1	99.6	99.0	98.7	99.3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3.3=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9	79.5	82.3	83.8	80.8	79.3	80.4	78.4	
2010.	1	79.8	82.6	83.9	81.3	79.7	80.6	79.1
	2	80.3	83.2	84.4	82.0	80.5	81.1	80.0
	3	80.8	83.8	85.1	82.5	81.1	81.9	80.4
	4	81.3	84.3	85.6	83.0	81.5	82.3	80.8
	5	81.7	84.5	85.8	83.2	81.7	82.5	81.1
	6	82.0	84.6	85.8	83.4	81.8	82.5	81.3
	7	82.2	84.7	85.8	83.5	81.9	82.4	81.5
	8	82.5	84.9	86.0	83.9	82.1	82.5	81.7
	9	83.0	85.5	86.5	84.5	82.6	83.0	82.3
	10	83.7	86.3	87.2	85.4	83.6	83.9	83.3
	11	84.6	87.0	87.7	86.3	84.5	84.6	84.4
	12	85.2	87.5	88.1	87.0	85.2	84.9	85.3
2011.	1	85.9	88.4	88.8	87.9	86.1	85.8	86.4
	2	87.3	89.9	90.4	89.4	87.9	87.8	88.0
	3	88.9	91.1	91.8	90.5	89.5	89.8	89.3
	4	89.9	91.7	92.3	91.1	90.1	90.5	89.8
	5	90.7	92.1	92.6	91.5	90.4	90.8	90.0
	6	91.3	92.5	92.9	92.1	90.8	91.1	90.6
	7	92.0	93.3	93.6	93.0	91.8	92.0	91.7
	8	93.0	94.5	94.7	94.2	93.4	93.6	93.2
	9	94.3	96.0	96.3	95.8	95.5	95.8	95.2
	10	95.1	96.9	97.2	96.6	96.5	97.0	96.0
	11	95.6	97.1	97.5	96.7	96.7	97.5	96.2
	12	95.7	97.0	97.4	96.6	96.6	97.3	96.0
2012.	1	95.9	97.0	97.5	96.6	96.5	97.3	95.9
	2	96.3	97.3	97.7	96.8	96.7	97.5	96.1
	3	96.7	97.5	98.0	97.0	96.9	97.8	96.3
	4	97.1	97.6	98.2	97.0	97.0	97.9	96.2
	5	97.3	97.6	98.3	96.9	96.9	97.9	96.1
	6	97.4	97.6	98.3	96.9	96.9	97.8	96.1
	7	97.6	97.6	98.2	96.9	96.8	97.8	96.0
	8	97.7	97.6	98.3	97.0	96.8	97.8	96.0
	9	98.0	98.0	98.6	97.4	97.3	98.2	96.6
	10	98.5	98.5	98.9	98.0	98.0	98.6	97.4
	11	98.9	98.8	99.1	98.5	98.5	98.8	98.2
	12	99.1	99.0	99.1	98.9	98.7	98.9	98.6
2013.	1	99.3	99.2	99.3	99.2	99.0	99.0	99.0
	2	99.6	99.6	99.5	99.6	99.5	99.4	99.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4	100.5
	5	100.6	100.5	100.4	100.6	100.6	100.6	100.7
	6	100.8	100.7	100.6	100.8	100.9	100.8	100.9
	7	101.1	101.2	101.1	101.3	101.5	101.5	101.6
	8	101.7	102.1	101.9	102.2	102.5	102.5	102.6
	9	102.5	103.1	102.9	103.3	104.0	103.9	104.1
	10	103.5	104.3	104.1	104.6	105.5	105.5	105.6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10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 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 매매가격
강 북 구	99.3	103.2	99.4	107.5	1068.9
광 진 구	99.5	102.7	98.7	105.5	1715.9
노 원 구	98.6	104.5	98.6	105.3	1089.2
도 봉 구	99.1	106.3	98.8	106.4	1003.4
동대문구	99.1	103.0	98.3	102.8	1206.7
마 포 구	99.1	104.0	99.0	106.7	1596.1
서대문구	99.5	103.8	99.4	105.2	1205.4
성 동 구	98.7	106.2	98.2	107.4	1608.8
성 북 구	99.9	105.1	99.4	107.3	1194.7
용 산 구	97.2	103.9	97.6	103.1	2299.0
은 평 구	99.5	103.0	98.5	106.0	1201.9
종 로 구	99.8	103.0	99.4	103.4	1586.1
중 구	99.9	105.8	99.4	105.9	1644.0
중 랑 구	98.6	102.3	98.5	102.2	1059.2
강 남 구	99.5	104.3	99.1	104.1	2848.4
강 동 구	99.6	104.0	99.3	104.6	1601.7
강 서 구	99.4	106.4	98.9	109.2	1238.9
관 약 구	99.9	103.5	99.5	105.1	1192.7
구 로 구	99.6	104.9	98.9	105.4	1139.2
금 천 구	100.1	105.2	98.6	105.0	966.2
동 작 구	99.7	103.2	99.1	104.9	1495.2
서 초 구	99.8	103.6	100.0	103.8	2616.3
송 파 구	99.9	105.5	100.1	106.9	2128.9
양 천 구	99.0	104.3	98.8	106.5	1686.8
영등포구	98.9	104.3	98.9	105.2	1509.1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률(₩/US\$)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4	2.55	2.91	2.80	2.75	1,938.9	1,121.8
5	2.59	2.96	2.72	2.55	1,974.5	1,110.7
6	2.87	3.24	2.69	2.49	1,884.4	1,135.2
7	2.91	3.38	2.68	2.48	1,871.8	1,127.2
8	2.94	3.33	2.66	2.50	1,897.0	1,117.0
9	2.90	3.29	2.66	2.50	1,984.4	1,087.4
10	2.83	3.25	2.66	2.50	2,029.7	1,066.8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4	2,078	277	118	1,670	0.02	39
	5	2,140	279	129	1,721	0.02	29
	6	1,947	300	113	1,518	0.01	20
	7	2,267	360	122	1,770	0.01	38
	8	2,065	246	126	1,683	0.01	33
	9	1,737	238	87	1,406	0.04	30
	10	2,106	273	113	1,711	0.04	49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 분	2013년			전월비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2,065	1,737	2,106	369	21.2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0	6	9	3	50.0
제조업 계	246	238	273	35	14.7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29	32	29	-3	-9.4
섬유 및 가죽	49	45	54	9	20.0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6	15	8	-7	-46.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	5	9	4	80.0
고무 및 화학제품	33	37	38	1	2.7
기계, 금속	27	27	30	3	11.1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55	55	77	22	4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6	4	1	-3	-75.0
기타 제품제조업	27	18	27	9	50.0
건설업 계	126	87	113	26	2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6	5	4	-1	-20.0
건설업	120	82	109	27	32.9
서비스업 계	1,683	1,406	1,711	305	21.7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1	1	2	1	100.0
도매 및 소매업	469	423	508	85	20.1
운수업	44	34	48	14	41.2
숙박 및 음식점업	49	31	46	15	48.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3	282	328	46	16.3
금융 및 보험업	215	190	195	5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88	123	35	39.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1	200	236	36	18.0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83	70	101	31	44.3
교육서비스업	57	44	55	11	2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3	3	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17	22	38	16	72.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30	18	28	10	55.6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10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10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10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10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10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10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3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11월호)

2005년

3월호 | 권두칼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정병순)

4월호 | 권두칼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5월호 | 권두칼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제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6월호 | 권두칼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7월호 | 권두칼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 방향(김현아)

8월호 | 권두칼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 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9월호 | 권두칼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10월호 | 권두칼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11월호 | 권두칼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12월호 | 권두칼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6년

1월호 | 권두칼럼: 윤리경영, 환경경영(조동성) |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월호 | 권두칼럼: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왕연균) |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윤) |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전성근)

3월호 |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박희석) |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정병순)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전(박래현) |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신창호) |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5월호 |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동직)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를 향하여(황인식)

7월호 |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유근)

8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리도삼) |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구문모) |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주성재) |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성용)

9월호 |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안중석) |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일영)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김철원) |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박종구) |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이기)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제도약의 계기로(신창호) |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정병순)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별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경원) |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신(강현주) |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김영수)

2007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박창일) |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크(원윤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윤·박희석) | 자치구

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축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천수)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김기용) | 서울시 컨벤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진홍석) |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 을 꿈꾸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미이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축진지구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윤보) |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신창호)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희·박희석) |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엽) |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항문) |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최영수)

2007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차문중) |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고준성) | 한미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김범수)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권장오)

2007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환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정경원) |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신창호)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최두은) |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유경림)

2007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김문환) |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장광렬) |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박용재) |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윤중)

2007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안정숙) |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장동찬) | 서울시 드라마 산업(고정민) |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여덕수)

2008년

2008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김경환) |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 을 향하여(최재현)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홍석기)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김상호)

2008년 2월호 | 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박영범) |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 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 외국인력 정책과제(이규용)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구자선)

2008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장윤중) |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이홍식) |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전영제)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mbiz) 기업 현황(박희석·권태구) |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기순)

2008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순) |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련) | 디자인 서울(윤종영) |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고광득)

2008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육성수) |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고준호)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형) |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이상헌) |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전인우) |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손민중) |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김재형)

2008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박승록) |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고유가와 민생대책(이달석) |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동욱)

2008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김태희) |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이경희) |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윤남수) | 생생리포트: 경기도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태두)

2008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김영인) |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김민자)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조익래)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하익봉)

2008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주선) |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임준) | 서울시 의료 관광 현황과 방향(윤형호) |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임수근)

2008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최경수) |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부형) |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 2助(김선빈)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009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박희석) |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김선홍)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선인명) |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조달호이춘화)

화) |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정종규)

2009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권형준) |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윤형호) |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윤주환)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김백곤)

2009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김정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이정택) |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박병욱) |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봉로)

2009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 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김성수) |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찰(김문기) |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이상규) |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부경진) |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 녹색성장을 위한 100조명 발전방안(주대영) |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심규표)

2009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윤형호) |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허재준) |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미일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창석) |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삼·장남중·권미리) |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건) |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다(권장오)

2009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위정현) |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 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 게임한류의 성과(김만규) |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윤형호) |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동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 제약 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김은혜)

2009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장제) |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문경일) |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이지평)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용순)

2009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정희운) |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크 전략(김찬동)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점(김영수) |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이미령)

2010년

2010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디자인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전략(라도삼) | 경제포커스: 디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최성호) |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홍석기)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양성태)

2010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김성태) |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임상수) |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김민성) |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최용순)

2010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 가계 재정 분석(윤형호) | 경제포커스: 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 기회(김신영) |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임춘식) |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우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와의 시사점(박호경) |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I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종인)

2010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정호) |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문경일)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정책(안재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제도약과 IT융합산업(정병순) |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업의 발전방안(조연숙) |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상영)

2010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체 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의 발전방향(송재용) |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김묵한) |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2011년

2011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 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변미리) | 글로벌 메가 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이관수)

2011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 SR센

터(조달호·정규진) |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이관수)

2011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흠어보기(김목한) |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김상태) |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이종관) |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한상필) |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학(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이갑수) |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안남우) |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김태홍) |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진중순) |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박희석·한진아) |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김선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조호정)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김도훈) |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성한경)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신상영) |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박정현) |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 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홍승아) |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2012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김동열)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이은애) |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용선)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목한·김범식) |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중식) |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곽지원)

2012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나도삼) | 현시태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송기철) |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룡) |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곽지원)

2012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김태곤) |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강오) |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김동환) |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홍피영) |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

반기 서울경제 전망(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김영생) |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김영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CEO)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이종욱)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협동조합금융의 제안(김자봉) |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게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 어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홍호성) |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권영돈) |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 서울 아파트 평당 (3.3㎡) 전세가격과 증가율(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I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황 및 상생협력(강희은)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김범식) |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 서울 지역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013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

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노희봉) |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승돈)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박덕배) |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배준식) |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고정민) |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라도삼) | 생생리포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김재묵) |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곽대중) |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김민경) | 생생리포트: 서울, 주점보다 커피전문점(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R&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김연배) |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박문수)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서울신용보증재단) |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창조경제 시대의 빅 데이터(정우수) |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전승우) | 생생리포트: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김태홍) | 인포그래픽스: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어르신 적합 직종 개발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정은하) |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윤민석) | 생생리포트: 기능과 미학의 경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김희영) | 인포그래픽스: 서울 사회적기업(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창조경제와 바이오 산업, 바이오 경제(이민석) | 서울의 미래,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남도현) | 생생리포트: 공공임대주택과 소셜믹스(오정석) | 인포그래픽스: 서울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김미현) |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1): 지식기반제조업(김목한, 장윤희) |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박희석, 오도영) | 인포그래픽스: 서울에서 여성중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서울경제분석센터)